

김추일 비록 저 높은 하늘이니
신, 악마, 범천, 제석이라
하더라도, 모두 자신을 이기는 사람을 이기
지는 못한다 (범구경·술천품 285절)

東大新聞

발행인: 김추일
주필: 김추일
편집: 김추일
인쇄: 김추일
민심: 김추일
병의: 김추일
천사: 김추일

편집부: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 (2220-3492)
780-714 경북 경주시 석강동 707 (2770-2067)

제 1163 호 (주간) 1964. 1. 1 등록번호 다-10 1965. 10. 13 제3종우편물(가)급인가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4년(불기2538년) 11월 23일 (수요일)

장내순씨 12억 상당 임야기증

병원 건립·장학사업 당부



독실한 불교신자인 장내순(70·서울 성북구 장위1동) 할머니가 후학양성을 위한 발전기금으로 써 달라며 시가 12억원 상당의 임야 4천평을 본교에 기증했다.

지난 18일 총장실에서 임야 등기를 기증하고 민병천(정치외교학) 총장으로부터 감사장 및 우환참정하신 상자를 수여받은 장내순 할머니는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다"며 "자신을 대신해 임야에 병원을 건립하거나 장학사업으로 써 달라"고 당부했다.

장 할머니가 기증한 임야는 충남 아산군 영인면 신운리 소재로 야채장사, 밭장사 등 30년 전 행상을 하면서 장내순 할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으로서 평소 장 할머니가 다니던 수월암 효성스님과의 인연으로 본교에 기증하게 된 것이다.

한편 본교에 기증된 임야는 현재 공장부지로서 이후 구체적 논의를 통해 병원을 짓거나 기타 장학사업에 쓰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장내순 할머니의 임야기증에 관해 학교의 한 관계자는 "불자들이 학교발전을 위해 계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며 "장 할머니가 평생 동국한 방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보상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판권기사 8면)

신입생 입학시험 1월 9일

등록포기각서등으로 합격자등록 수월

95학년도 본교 신입생모집을 위한 면접고사가 특차모집 오는 12월 29일, 전기모집, 내년 1월 9일에 각각 실시된다.

이번 입시에서 본교는 대학본고사로 서울캠퍼스 지원자를 대상으로 '논술'고사를 실시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계열과 다른 계열에 지원시 감점처리하던 작년과는 달리 예·체능화제학과 지방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계열에 구분없이 교차지원이 가능하고 나머지 계열은 교차지원을 할 수 없다.

서울 캠퍼스 10개학과(법교, 국문, 영문, 법, 경찰행정, 경제, 정보관리, 전자공, 컴공, 건축공) 63명, 경주캠퍼스 2개학과(한의예, 의예) 13명을 뽑는 특차모집은 12월 20일부터 원서교부를 시작해 △원서접수는 12월 29일이며 12월 31일 이전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총 4천7백24명을 뽑는 전기모집은 오는 12월 20일부터 원서교부를 하고 △원서접수=95년 1월 2일~4일 △예비모집=인문·자연계(서울 1월 8일, 경주 1월 9일), 예·체

능계(서울 1월 7일, 경주 1월 8일) △대학본고사=95년 1월 9일(서울 캠퍼스) △면접고사=95년 1월 9일이고 1월 12일부터 1월 15일까지 논술고사 체점을 하여 내년 1월 25일 이전에 합격자 발표를 한다.

한편, 예·체능계 실기고사는 △체육교육과=95년 1월 8~9일 △미술학과=95년 1월 10~11일 △연극영화학과=95년 1월 9~11일 경주캠퍼스 △국악과=95년 1월 10~11일 △사회체육학과=95년 1월 10~11일에 각각 실시한다.

면접고사가 타대학과 달리 복수지원이 많아 미등록자 증원이 힘들었던 작년과는 달리 올해엔 20여개 대학과 같은 날 면접고사를 실시하고, 합격자와 예비합격자는 함께 발표한 후 '95년 2월 4일 3시 예비합격자의 등록희망일이나 등록포기각서를 제출해 해 '95년 2월 6일 1차 추가합격자를 발표하고 이후 2차부터 추가합격자는 개별통보하는 등 합격자 등록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규교원 총3백54명 응모

경쟁률 평균 7대1

'95학년도 1학기 신규교원 초빙에 총3백54명이 응모해 오는 12월 6일까지 화과심사에 들어간다.

서울캠퍼스 38명, 경주캠퍼스 41명의 신규교수를 초빙할 계획으로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16일 마감된 이번 신규교원 초빙에 서울캠퍼스 일반계열에는 △불교이동학과=1 △국악과=9 △인문과=3 △국사학과=3 △회화학과=16 △생화학학과=15 △전산통계학과=1 △전자계산학과=6 △경영학과=13 △정보산업학과=2명으로 응모현황이 집계됐으며 한의예1명, 의예14명과 포항병원17명 등 의학계에 총 32명이 응모했다.

이번 신규교원은 12월 6일까지 화과심사를 마친후 총장 및 학과장 등 관련인사와의 면담을 거쳐 재단이 사에서 최종 결정해 초빙하게 된다.

학생처장·문과대학장 사표수리

지난달 31일 있었던 국문과 사건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 부총장 이하 모든 보직교수들이 사표를 제출했으나 학생처장과 문과대학장의 사표만이 지난 21일 수리됐다.

한편 이부대학장은 병환으로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응모 2백53명이 지원해 평균 7.2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전학과 대상 계열군통합추진

95년 교육과정은 현행대로

교무처(처장=정병조·국민윤리)는 본교 학과·계열군 통합작업과 관련해 '95학년도 교육과정을 현행대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교양교육과정은 매 해마다 부분적 개정이 되고 5년마다 전반적인 개정이 이루어지는데 개편시기를 맞아 현행 교양교육과정은 대학구성원의 다양한 요구와 사회적 변화에 대처하기에 미흡한 점이 많고 또한 95학년도에 있을 대학총합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전면적인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교무처는 올 7월부터 '95학년도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교수 연구팀을 구성해 전면적인 교양교육과정의 개편을 시도하였고 그 구체적 실시를 위한 본교 교육시설 및 강의연장 등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던 중 올 7월 교육부의 '학과 통합으로의 정책대진환 추진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학과 또는 계열군으로의 통합추진이 계획되어 본교의 교과과정개정 유보가 결정된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내용은 "현행의 세분화된 학과구조로는 △세계적 학문 조류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의 중복

편성 △학문 영역별 폐쇄운영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의 제한 △졸업자의 취업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학과군 또는 계열군으로의 통합을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대학지원정책의 일대진환을 예상함에 따라 본교는 내년부터 '전선통계학군'을 학과군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96학년도에는 학내 여론수렴을 통하여 전체학과를 대상으로 학과군 또는 계열군으로서 통합을 추진할 계획을 수립한다.

따라서 본교에서는 학과조정작업과 더불어 교육과정도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므로 학과 통합과 교과과정의 연계적 추진도 구성하고 단과대학별 교육과정개편 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과정을 영구제안토록 결정했다.

보리수

신앙적 주체성

우리나라의 불교역사와 문화에 있어서 신라인들의 주체성은 단연 돋보인다. 그들은 불교를 수용하고 전개하는 과정에서 인도·중국과의 연관 속에서도 철저하게 신라 본위적 사상과 그에 대한 긍지를 잃지 않고 있다.

불교의 본격적인 흥隆에 나선 진흥왕은 신라 최대의 국립사찰 황룡사를 세운 다음 이곳에 일장유취의 석가모니불상을 조성해 모시고 있다. 삼국유사에는 이장유취상에 관한 연기설화가 실려 전한다.

인도의 아쇼카왕이 나라 안의 황궁과 절을 모아 석가삼존상을 조성하려다 끝내 이루지 못하자 '인연있는 나라에 이르러 존용이 이루어 질 것'을 축원하면서, 사연을 적은 글과 함께 모형 삼존상을 큰 배에 실어 바다에 띄웠다 한다. 이 배가 1천3백여년을 떠돌 끝에 마침내 신라 남쪽 아곡현 사포(지금의 울산 미포)에 닿음에 진흥왕이 사연을 읽고 금칠을 경주로 옮겨 훌륭한 존용을 완성했다는 것이다. 이 설화에는 신라가 부처님의 탄생지 인도보다 더한 불연국토임을 자부하는 신앙심이 담겨 있으며, 진흥왕의 불교적 위치가 아쇼카보다 더 뛰어나다는 자긍심을 보여준다.

이같은 신앙의 주체성은 섣달 완대의 고승 자장에게서도 잘 나타난다. 자장은 울산인 동시에 실천적인 화엄신앙가였다.

그런 자장이 문수성지로 널리 소문난 중국 오대산을 참방코자 했을 때 담연한 일이다. 그는 섣달 왕 5년에 당으로 건너가 오대산을 찾았으나, 여기서 기도 끝에 문수보살의 진신(眞身)을 친견할 수 있었다 한다.

그런데 한 이승(興僧)의 모습으로 나타난 문수보살로부터 자장은 "그대 나라 동북방 명주 땅에도 오대산이 있고 그곳에 일만 명의 문수가 삼주하고 있으니 가서 보도록 하라"는 말을 듣는다. 우리나라 강원도 오대산은 이렇게 해서 자장에 의해 설정된 문수도량이다.

화엄경에서 문수는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이다. 그리고 지혜(prana) 그것은 곧 실상을 깨달음이며 보편타당한 진리에 대한 인식이요. 그렇다면 자장의 문수보살 친견은 그대로 보편타당한 진리와의 만남인 것이다. 따라서 그런 문수보살이 신라인을 없애 수가 없는 것이다.

신라인들이 보여주는 신앙적 주체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마음 밖에 진리가 따로 없는데 어디 가서 무엇을 구하라(心外無法 胡用別求)'라고 말하며 담 유학을 그만 둔 원효에게서도 나타나고, 천연한 불교문화 예술의 곳에서도 그 향기를 짙게 느낄 수 있다.

국제화, 문화개방 등 이 시대의 이슈에 비추어, 새삼 음미해 보아야 할 한국불교의 신앙적 주체성인 것이다.

李逢春

원광대학원과 학점교류추진

국제부(부장=이원부·정보관리)는 원광대학원과 학점교류추진에 학점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원광대학교는 지난 7월 22일 국내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본교의 학점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으로 15개 단과대와 86개 학과, 5개 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점교류가 체결되면 원광대학원생과 본교 대학원생은 상대 대학원의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된다.

국제부의 한 관계자는 "원광대와 같은 불교대라는 특성 때문에 교류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제부는 영문책자발전, 동양대, 서북대와의 자매결연을 위한 총장 방문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제32회 학술상 및 제9회 동내문학상 공모

제32회 학술상 작품모집

본교 학생들의 학구열을 고취하고 학문적 성과를 진작시키기 위해 제정, 일한 수확을 거둬온 본사 학술상이 올해로 3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학술상에도 학문연구에 정진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로 동국의 화풍을 더욱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분야
인문과학상: 본상 및 가작(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사회과학상: 본상 및 가작(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자연과학상: 본상 및 가작(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응모요령
3개 분야 모두 2백자 원고지 60매 내외의 학술논문

◇응모지역
서울 및 경주캠퍼스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심사위원
본사에서 위촉하여 심사작과 함께 발표

◇제출기간
1994년 11월 10일~30일까지

◇입상작 발표
1995년 1월 1일자 본지 지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바람
전화 (02) 260-3491·2

제9회 동내문학상 작품모집

본사에서는 동국의 문학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내일의 한국문단을 이끌어 나갈 참신한 인재를 발굴하고자 제9회 동내문학상 작품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시 부문: 3편 내외
소설 부문: 2백자 원고지 60매 내외
평론 부문: 2백자 원고지 60매 내외

◇응모지역
서울 및 경주캠퍼스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제출기간
1994년 11월 10일~30일까지

◇시상
시 부문: 본상 30만원 장려상 15만원
소설 부문: 본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평론 부문: 본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심사위원
본사에서 위촉하여 심사작과 함께 발표

◇입상작 발표
1995년 1월 1일자 본지 지상
※ 제출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 바람.

모니터 요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부문

1. 어학특강	5명
2. 기능강좌	5명
3. 도서관	5명
4. 식당	5명
5. 기타 매점	5명
6. 기타 시설	5명
7. 연구활동 1	5명
8. 연구활동 2	5명
9. 연구활동 3	5명
10. 연구활동 4	5명
(총 계)	50명

목적 1. 학우들의 요구 직접 수렴
2. 생협의 기초토대인 직접 민주주의 구현의 기초 꾀 자발적 참여, 자신의 의사 반영
3. 모든 사업에 대한 견제와 협조

역할 1. 주 1회 모임을 갖고 1주에 대한 평가
2. 월별/분기별(설문을 통한) 학우 의사 수렴
3. 분기별/학기별 프로젝트 연구
4. 학부위/공관위(향후 생협)에 대한 학우들의 홍보/교육

자격 1. 본교 재학생인 학생
2. 1년정도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자
3. 본 회의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자

혜택 1. 학부위에서 실시하는 특강 무료 수강(임의 조정)
2. 정기 모임시 자료/연구비 지원
3. 기타 지원은 요원 선발후 공지함

모집일자: 94. 11. 23~11. 30.
학생복지위원회

공 고

교수회규정 제 44조, 동국대학교 총장후보추천에 관한 규정 제 13조, 제 14조 및 제 15조에 근거하여 제 13대 총장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 및 입후보자 등록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다 음

- 선거일: 1995년 1월 15일(일)
(선거장소, 시간 및 기타 선거관련 사항은 추후 공고함)
- 입후보자 등록
· 등록기간: 1995년 1월 3일 부터 1995년 1월 5일까지(09:00~17:00)
· 등록장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 입후보자 등록 확정공고: 1995년 1월 6일 09:00

※ 입후보자 등록기간 마감전까지는 일체의 사전 선거운동을 금하며, 위반시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총장후보추천에 관한 규정 제 5조에 의거 후보자격 심의시 이를 반영할 것임.

1994년 11월 15일

제13대 총장후보추천선거관리위원회

조대 시 다시 지리산에서

전 남 진 (경주국문 94출·동국문화회 7기)

산이 보이지 않는다
들과 나무와 공기, 소음 몇개만 있다
길에 선명하게 찍힌 세월을 밟고 간다
업은 것과 잃은 것의 차이는 남아 있지 않다
늘어나는 생각과 싸우다
얼마나 더 긴 세월을 보내야
산이 보일까
밤까지 산행하기로 하고
랜턴을 미리 꺼내 불빛을 확인한다
지금은 조그만 불빛만 있다
그러나 곧 길을 보여주는 빛을 만들 것이므로
내가 살아 있고
우리가 살아 있는 까닭이다
산에 길이 있고
길에 산이 산다
길을 가다 보면 산에 내가 있고
내 속에 산이 생긴다
새벽이 저기 길을 만드는 회색작업
거기 우리가 산다

열린 글터

개성있는 목소리를 가진 동대인을 찾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문의는 (02)260-3491-2 (0561)770-2057

자유 발언대

학생회관은 쥐들의 왕국
공간부족, 시설낙후 등 문제심각

총학생회 선거를 준비하면서 학생회관출입이 잦아진지도 한달이 되어간다.
올해 동아리연합회의 공간문제에 대한 투쟁을 지켜보면서 막연하게 느꼈던 학생회관의 문제점들이 이제는 피부에 와 닿는 걸 느낀다.
나를 처음 가장 놀라게 한 것은 학생회관에서 길러지고 있는 쥐들이었다.
학생회관은 가장 많은 수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말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학생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출입하고 있다.
현재 우리학교의 학생회관에는 1층에 총학생회실과 총대의원회실이 있고 몇개의 동아리방도 있다.
2층에는 가정교육과 실습실인 연화실이 있고 세미나실, 총학생회실, 동아리방, 3층에는 동아리연합회실, 상설전시장, 동아리방들, 4층에는 방송국과 동아리방들, 5층에는 소극장과 동아리방들이 있다.
그리고 지하에는 동대신문사와 영자신문사, 6층옥상에 백상음원단이 있다.
주로 동아리방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실제로 공간이 매우 부족하기에 세미나실, 동원실 등이 제 역할을 못하고 동아리방으로 쓰여지고 있다.

동학의 공간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고질적 현상이지만 특히 학생회관의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
그저서 올 1994년 동아리연합회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투쟁을 벌여나갔다.
이에대해서 학교측도-특히 95년 있을 대학평가에 맞추어서-학생회관의 공간재배치에 대해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학생회관은 동아리방들이 모여있는 그 이상을 뛰어넘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상설전시장과 세미나실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
너무 낙후되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전시장, 이곳을 이용하는 단체들이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못했던 것 같다.

현재 동아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세미나실도 공간재배치 속에서 꼭 확인되어야 할 부분이다.
동아리방들을 들어가 보면 각 동아리마다 방의 크기 차이가 존재한다.
물론 기간의 활동 속에서 더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동아리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간부족의 문제하에서 어느정도의 규격화는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재배치시 분과끼리 모이게 함으로써 서로의 특성을 활용하게 할수도 있을 것이다.
이동벽의 설치의 이야기가 학교측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부분도 공간부족을 최소화하기 위한 좋은 안이라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짚고 싶은것은 처음에도 언급했지만 쥐들이 특산물 정도로 더럽고 넓은 시설과 환경이다.
이제 깨끗한 학생회관의 모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최첨단의 시설을 갖춘 학생회관 이전에 쾌적하고 깨끗한 그래서 기본이 좋은 학생회관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
우리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일임을 잊지말자.

김나영

(사범대 교육학과 제10대총학생회장)

노동자대회 통해 새로운 시각 형성
어려운 현실에 관심 가지게

많은 선배들과 함께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경희대에 들어섰을 때 수많은 사람들과 여기저기 흩날리는 전단지들은 나의 가슴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대운동장에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온집한 많은 노동자들과 학생들을 보고 처음에는 어리둥절 해졌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모였을까? 어려서부터 보아온 대중매체에서는 노조는 나쁜쪽으로 많이 보도를 했기때문에 솔직히 이런 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망설였지만 선배들과 동기들의 꼬임(?)에 빠져 참가한 것이다.

하루 동안의 문선대의 공연과 많은 연사들의 약간의 딱딱하지만 힘찬 연설은 거기 참가한 모든 이들에게 강한 감동과 인상을 남겨주었다. 연사들의 연설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노조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갈기갈기 찢어버렸고 다시 새로운 생각들이 내머리속에 여지가 아닌 강한 실투력과 올바른 당위성으로

대학의 지성과 도덕성 결핍증
불교정신으로 나서서 회복하자

한나라의 어제를 보러거든 박물관을 찾고 오늘과 내일을 보러거든 대학을 보라고 말해준다. 대학은 시대의 체온계로 나침반과도 같다. 대학은 스스로 역사와 시대의 아픔을 먼저 안다. 그리고 대학은 한편으로 시대의 역사와 웃음을 먼저 피워낸다. 대학은 좁은 현실에서 보다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들을 제시할 책무를 지닌다. 학문사상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도 그 책무의 반사로 요구되는 제도의 보장에 다름니다. 대학자치는 왜 자생했는가? 그것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외종(外國)을 막기 위해서다. 독일의 훔볼트가 베를린 대학을 설립하면서 총장을 교수회에서 선출토록 했던 전철은 그 대표적인 선례이다. 교육정책과 학사행정 및 재정 인사에 이르기까지 대학에 있어서 오늘날 교수회의 자치역량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학생도 물론 대학시설의 이용자이거나 관리의 대상이 아닌 대학주체로서의 평등권과 함께 교수의 자유와 대등



오규석

(한의학 94졸·경남 양산군 기장현의원장)
학계 학습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긍정적일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에 의한 '교수총회'는 머지않아 각 대학에서 실시될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평가에 앞서 학생들의 자신이 교수이상으로 연구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은사'라는 이름이 고귀하듯 '제자'라는 이름 또한 고귀한 것이다. 그래서 먼저 '제자'였음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보나 오늘의 대학은 거기서 있어야 할 '제자리'에 제위치에서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의 제자리 이탈은 과연 대학만의 잘못인가 아니다. 대학이 빼앗긴 제자리는 이 사회의 제자리 이탈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이 시대의 모든 사회계층들이 무루 제자리에 돌아갈때 대학도 대학다운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대학이 제자리를 되찾아야만 주체된 대학인들도 누려야할 제자리를 누리게 된다. 내일의 역사를 위하여 오늘의 십자가를 짊어진 대학인들이 더 이상 시대의 속죄양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성과 도덕성과 재구성의 면역결핍증이 오늘의 대학에 더욱 더항력을 떨어뜨리게 하고 있다. 지혜와 자비에 의거한 인간의 자기완성과 불교정도의 이상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불교정신에 일각한 우리 동국인들이 선도적으로 나서 오늘날 실추된 대학의 면역결핍증을 회복해야 되지않을까 한다.

지나호 동대신문을 읽고

선거, 신문·방송역할 커

지난 제1162호 동대신문은 요즘의 선거열기를 반영하듯이 선거기사로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5년의 경주 선거특집은 서울캠퍼스의 선거특집(제1160호)과는 큰 차이를 볼 수 있다. 우선 지면에서도 그렇고 내용면에서도 차이를 볼 수 있다. 인터넷형식이 주를 이룬 서울캠퍼스의 선거특집과는 달리 구조와 주요공약이 눈에 보이기 쉽게 만들어 인상깊었다. 4면의 음악으로 실린 "선거전·후"에서 서울캠퍼스의 투표 마감 1시간전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신문의 책임도 있다고 하였다. 선거자금의 축소와 선거열의 축소로 투표율저조는 예상되었던 일이다. 유세취제를 하며 보았듯이 선거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을 투표장으로 끌어오는 것은 선거운동원만 아니라 신문이나 방송의 역할도 크다고 보았다. 매주 신문을 보는 학생들에게 투표율저조라는 기성신문의 보도형식보다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기사를 실었으면한다.

김필식

(공과대 산공과 본사모니터)

경주선거특집 적절

지난주 동대신문(1162호)1면, 7면 확대보도면은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와 각과대학장 선거의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투표율과 공약사항등의 기사가 실렸다. 신문의 보도와 같이 투표율이 50%를 약간 넘게 기록했는데 학우들이 학내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무관심한지 여실히 보여준 기사였다. 학우들이 주어진 권리를 하루 빨리 찾아주었으면 한다. 경주 선거특집 후보자들의 약력공약사항을 다룬 기사는 진정한 알권리충족과 선택에 도움을 주는 '보도'의 측면에 일익을 담당했다고 본다. 그리고 여론채면에 '연가'라는 제목의 투고사가 실렸는데 재미는 있었으나 그 작품에서 흥미 이상의 다른 것은 기대할 수 없어서 안타까웠다. 좀 더 신중함 선정과정중 거쳐 작품을 기재 했으면 한다. 또 한가지 개교1백주년 기념사업 기금 기부자 명단이 2면의 반 정도를 메우고 있다. 광고고를 이용해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기사인데, 지면 매꾸기 식의 이러한 기재는 지양 했으면 한다.

김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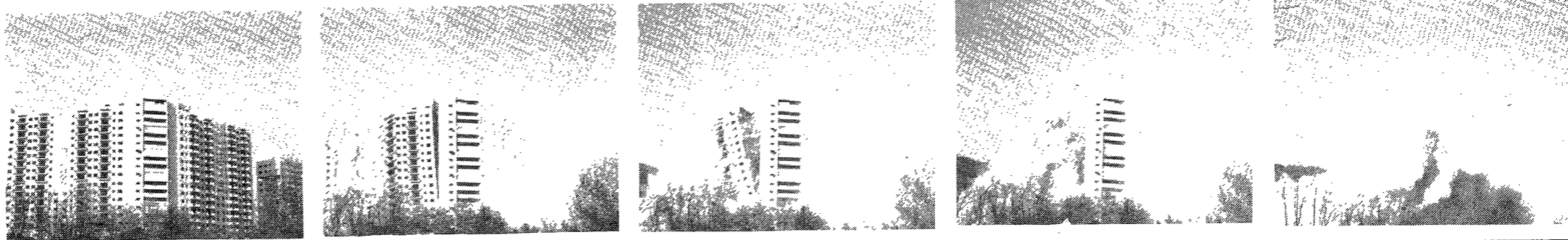
(법정대 법학과 본사모니터)

남산 외인아파트 철거

와우!

윤용민

(사범대 지교과)



목 먹골

축하합니다

- D.U.C.A 프로그램 전시회가 계산관 2층에서 합니다. 축하합니다!! - 두카를 사랑하는 94재순
■비구니회 기숙사개원식을 축하드립니다. - 불교학생회
■드디어 동대합창단이 정기공연을 하게 되었네요.
■손짓사화회 9기 수료를 축하합니다. - 강사님 일동
■KCC의 카니발 음향 축하한다. 12월3일. 어디라고? - 88잡은 94기록
■여러분! 기백해 주세요. Youth-Hostel이 방송했습니다. 하하하 - 15기 활우
■나우누리 백상(통신) 12월1일에 작은모임 백상이 드디어 동아리로 승격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 백상지기 올림
■삼유이형(12-4), 선경아(12-1) 생일 축하해. - SK

- 선영아(11월28일) 생일 축하해 - JOKA
■경문5기 백승권선배(장·의), 아기(다미)백일 축하합니다. 형수님 생일도요. - 경문 후배 일동
■지리교육과 학예회 '지표공간'의 발행을 축하합니다! - '94 일동
■제9 25대 학생회 여러분! 정말로 고생 많았어요. 26대 학생회 단장을 축하해용! - 동수
■2학기동안 과대표로 수고한 우리의 hope(유환)의 생일을 축하하며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 화학과 친구들
■축하하셨습니다
■석중·유리·주영·수정·소영이형! 1년동안 신문 만드느니라 수고하셨습니다. - 제36기 일동
■1년동안 수고한 과대표 진근아! 수고많이했다. - '94 지교포기
■경인아 수고했다. 내년에도 봄음을 볼 수 있을까? - 사랑하는 동기 성국
■머릿돌 1년동안 수고했수. - 영?

동/약/광/장

- 올 한해 수고하신 사우회 15대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떨어진 동
■AD-RUSH 전시회가 잘 끝나서 기뻐요. 특히 이수형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회계 범수
■CAPS 1년동안 열심히 활동한 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발고사 잘들보세요. - 장
■"경축 등·조인의밤"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Fighting!' - 자란방 시구
■1년동안 수고한 DUBS36기 일동 모두들 건강히 지낼 수 있도록. - K-H-S
■그리고
■법94 여러분 내년에는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 여러분의 동기
■지리교육과 글패'하구연'이 정기총회를 가졌고, 새로 다시 시작합니다. 무한한 발전이 있길... - 혜
■정운(무역 94)이 '군대탈가라!' 팔에 날 파리는. 비오는 날 홀주로에서 미끄러지지 말고 잘 지내라. - OSBISIOS(무역과 Outsider)일동
■"한국고대사연구회" 2년(9) 1년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군대 잘다녀오시구요. 탈영하면 안돼요. - your 1004
■세환아, 진식이 생일 축하해! - 자이방 희아
■스무해전 신세계교향곡과 함께 울음을 터뜨린 태영이 오빠의 생일을 축하해요!! - Y-L
■태욱, 넌 역시 좋은 놀이다. 20번째 맞는 생일 멋있게 보내길 바란다. 사랑한다. - 친구로부터
■수고하셨습니다
■영상 정기전시회(15회)무사히 마쳤걸요, 수고 많이한 집행부이 하 선배님·후배님 내년엔 더 열심히...그리고 전시회 찾아주시는 학우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 영상사
■창단기념식 및 졸업생원순회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졸업하시는 선배님들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 호우회 15기신배
■여보게 주군! 공연하느라 한해 동안 애썼네 - ?

은방골

축하합니다

- 박상욱, 네 20번째 생일을 백날만으로도 축하한다. 앞으로도 최선을... - 태욱
■무정아와 미화의 생일을 축하하고, time4학년 선배님들의 사회생활이 순탄하시길 바랍니다. - time4
■불휘 15기 가장 멋진생일이 생일이 11월19일 이래요. 같은 생일인 진실이가 축하한다.

- 제13회 동국서예전시회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회원들, 그리고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시한번 동국회의 무한한 발전은... - 동국을 사랑하는 사람
■영호아·일우아·명호아·지형아·강택아 이제 L.T도 끝났구나. 1년 동안 수고했다. - 87기
■열심히 합니다.
■효성이! 내가 왔다거서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다. 앞으로 네 생활 열심히 해라 - T-M
■환익아 시험잘봐 - 산-안공
■제12대 총학생회 건설을 위해 임후보한 배문석·고희철의 열정을 믿으면서 꼭 승리하기를... - 광춘
■연극회 2학기 워크샵이 아쉬움을 남기며 끝났습니다. 더욱 열심히 연기하는 15기가 됩시다. - 동국연극회 15기장
■DUCO9기들에게 L.T도 끝났고, 이제 너희들의 1년이 시작되는구나. 내년을 부탁해. - 8기
■국·경 귀영동이 효식님께서 군대에 가신다네요. 열심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길 빌며. - 전94 국·경인 일동
■솔메리아 '94 마지막 콘서트가 11월 21일 소강당 I에서 있었습니다. 선·후배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8기
■23일(수요일)원효과 소강당II에서 공개 오페라감상회를 갖습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무료입니다)~87기.9기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다. - 필하모니너
■24일 르타렉트 일일호프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학우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로타렉트 일동
■그리고
■인혜야, 항상 내옆에 내가 있음을 잊지마. 그리고 2001년 봄은 우리만남, 앞으로도 지속적이길... - 성원
■연신아, 너에게 해줄단한마디 '사랑해' - J-9
■꼭 선거일에 투표하는 자랑찬 동국학우이기를... - 8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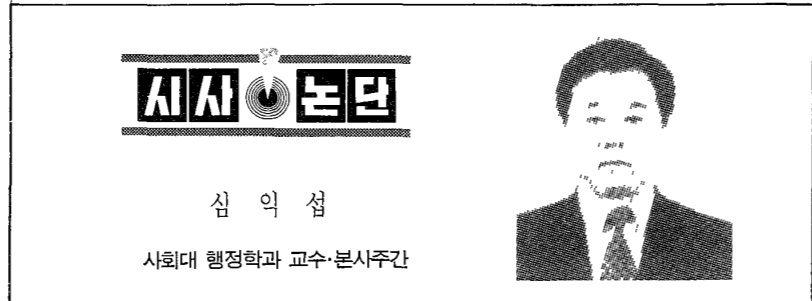
◆대학의 올바른 세계화란

‘무국적 지성인’ 부끄러워 할때 가능

“세계화 국제화”라는 말은 여전히 민병 통치 약처럼 작용하고 있다. 금년초 대통령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던 국제화 바람은, 기회있을 때마다 정부와 언론에 의해서 강조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일련 무한정정체로 전환되고 있는 현 국제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구조로 작용하기도 하였고, 다른 면에서는 정국의 위기를 타개하고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수단으로도 이용되었다.

연말을 앞둔 지금 한걸음 더 나아가서 국제화 보다는 세계화가 강조되고 있음을 본다. 한마디로 국가간의 경쟁에 초점이 맞춰진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보다는 좀더 범위가 넓은 거시적 개념을 세계화(Globalization)라고 할 수 있다. 즉 세계화란 국내적으로는 모든 부문에 합리성과 경쟁이 정착되게 하고, 국외적으로는 국제무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 활동하고 협력한다는 뜻이다. 이말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모든것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응시킨다는 의의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국가간위를 전제화하는 국제화와는 달리 세계화는 좀더 넓은 “지구촌개념”으로 이해되며 따라서 그만큼 더 적극적으로 진취적인 뜻이라고 할 수 있다.

1년 내내 “세계인”이 되자고 떠들던 정·관·언론계가 대통령의 APEC 순방기간중 밝힌 “세계화 구상”으로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김영삼대통령의 시드니 선언에 맞추어 활발하게 세계화



심익섭 사회대 행정학과 교수·분사주간

락 구상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제화를 단순히 세계화로 대체시키는 이류바꾸기식의 전락으로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적극적으로 세계를 향한 미래개척의 의미를 지닌 세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으로는 내실화를 견고히 해야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화를 확실하게 구현할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세계화가 중요하기는 하나 코스모폴리탄 정신을 부각시키는 추상적인 개념으로는 구체적인 전라이 나올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여기에는 세계화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도 마찬가지이다. 국가간의 무한경쟁시대와 함께 UR등에 따라 대학에도 국제화와 세계화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미 일부대학에서 외국어로 진행되는 강좌가 늘어나고 있으며, 인터넷처럼 세계적인 학술정보망의 구축을 많은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서두르고 있

는 실정이다. 그런가하면 국제정보 관련 강좌를 강화하고 있고, 나아가 외국대학과의 자매결연이 유행처럼 증가하고 있다. 바야흐로 대학도 경쟁시대를 맞아 내부적으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생존경쟁을 벌여야할 단계에 와있는듯 하다. 본격적으로 국제화시대를 선도하고 세계화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변신의 폭을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구수에 젖어있는 한국의 대학들은 실제보다는 형식으로 만족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예를들어 대부분의 자매결연 대학과의 교류내용을 보면 체결 당시의 화려한 선전과는 달리 내용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극히 일부에서 교수교류와 학생교류 또는 정보교류가 있었을 뿐, 거의 모든 자매결연관계가 ‘형식적인 관계’ 자체로 유지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얼마전 사회문제화 되었던 대학총장의 무국적 문제는 묘한 대조를 남

겼다. 나아가 범위에 의한 무국적자인 총장의 선임무효 판결이후, 외국국적을 포기안하고 있는 현직교수가 4명밖에 남는다는 통계와 보고는 과연 무엇이 국제화이고 세계화인지 오늘의 대학인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물론 대학은 최고의 학문수준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국제화를 갖고 무어라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세계화시대에 대비한 대학이 저마다의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지금 대학교수의 국적문제는 자칫 섣부른 망상으로 보일수도 있다.

그러나 단순한 지식만의 전매권을 전문인을 양성한다는 차원 이상의 의미가 우리대학교육 안에 내재되어 있음을 이해한다면, 이는 실정법 위반 이전에 도의적 문제가 쟁점 있을 수 있다.

혹시 무국적 지성인들이 개인적인 편의의 주의를 발산해서 외국국적을 포기안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세계화 이전에 심각한 교육 위기를 불러올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UR타결이다. WTO 출범이다 하는 세계화 시대가 바로 우리앞에 놓인 현실임을 직시할때 “가장 지방적인 것이야말로 가장 국제적인 것”이며 “가장 한국적인 것이야말로 가장 세계적인 것”임을 다시 한번 음미할 때이다. 어차피를 분야에 따르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의 대학 역시 세계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무국적 지성인’들이 부끄러워 할 때라야 가능할 듯 하다.

사설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자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만들고 있다. 각자가 자기가 살아온 지난 한 학기의 생활들을 생각 해볼 만한 시기 인것같다. 바로 종강을 준비할 때가 다시 찾아왔다. 언제나 2학기 종강이 다가오면 마한가지이겠지만 한해를 정리하는 마음과 학년이 올라가고 또 사회로 진출해야 한다는 생각에 공연히 마음이 바빠지고 어수선했지 기 마련이다.

올 여름 유난히도 뜨거운 태양이 비추었다. 그리고 박종 서강대 총장의 발언과 주사과 논쟁, 신 공안 정국, 사회 전반의 보수 회귀 현상이 뜨겁게 달아올랐었다.

이어 우리에게 커다란 파문을 던져 주었던 총장 직선제 폐단과 관련한 일련의 발표를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2학기를 시작하기전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개강을 맞이하였다. 학사보고회 자리에서 이사장의 직선제의 폐단 및 더 좋은 방식 고려 발언은 우리의 시작을 혼란으로 이끌었고 이는 지난 한 학기 동안 꾸준히 학내 주체들의 주요 논란 대상이 되어 왔다. 어찌됐든 이 문제는 교수회의 현 규정에서 의한 총장 선출 결정으로 그 논점이 다른 곳으로 옮겨간 상태이다. 이런 총장 선출과 관련한 일련의 논란들이 이번 학기 학내에서 주되게 이야기되었다면 후반기부터 들어서면서 국문과 학생 7명의 ‘교수 폭행 사태’는 동국인에게 커다란 위기의식을 안겨주었다.

우선 이번 사태가 가십 언론에 의해 보도되고나서 가지는 상실감이 그 위기 의식의 시작이었을 것이고 그 다음은 우리 자신에 대한 위기 의식이었을 것이다. 그 동안 잊고 살아왔던 동국에 대한 자긍심, 기억 저편으로 멀어져간 동국의 학풍 등 우리 자신에 대한 위기 의식은 아직도 해결해야될 과제로 남겨져 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전개되는 과정속에서 가장 자신의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학생회였을 것이다. 2학기가 시작되면서 학내의 정세가 총장 선출 방식 논란의 국면으로 접어들자 학생회는 발빠르게 움직이는 듯 하였으나 ‘직선제 사수와 자주적 총장선출을 위한 총궐기’ 이후 학생회 선거로 돌입하면서 학생회는 제 목소리를 잃어 갔다. 선거 공간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정책화, 공약화 해나가는 했지만 그것들이 학생회 체계속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로 자리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물론 학생회 체계 역시 이월단체에 돌입해 있었기 때문일것이라는 위안을 가질수도 있었지만 이런 모습이라면 진정 학생들을 책임진다고 할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남는다.

이뿐 아니다. 극문과 사태 이후 학생회가 보였던 학내 관련 주체들의 모습은 대외적 성명서 하나 제대로 못내는 형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총학생회 선거의 높은 투표율은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이의 결과물로 54%라는 사상 최악의 투표율이 나왔

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지난 한학기를 겸허한 마음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준비를 위한 기간인 종강을 맞이해야 할것이다. 그동안 풀지 못했던 문제가 남아있다면 깨끗이 마무리 짓고 한학을 마감하자. 이것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동국만평

박현진



과연?

대학순위도와 종합평가 인정제

마지막—시설·재정·경영 평가

이번주에는 대학종합평가 인정제 평가항목중 마지막 항목인 시설·설비 영역과 재정·경영 영역의 실태와 평가, 대책을 살펴본다.

시설·설비 영역

이 영역은 총 5백점중 1백점이 배정된 평가비중이 교육영역 다음으로 높은 부분으로 △교육기본시설(24) △교육지원시설(32) △실습실습설비(26) △후생복지시설(18) 등 총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 평가 항목인 교육기본 시설부분에서 강의실 확보 정도는 현재로서는 별 무리가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실험실습설비의 확보 정도는 70~80%선 인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의 보완을 위해 동국학술문화관 건립이후 이루어질 공간 배치에서 실험실습설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것이다.

다음으로 교육 지원시설 부분은 도서확보의 적절성, 열람좌석의 확보, 국·내외 정기간행학술지 구독, 교육매체 제작 시설의 확보 및 실험, 교육용 컴퓨터의 확보상태, 정보처리시설의 구축 및 운영, 체육시설의 적절성 등 7개 평가 항목이 있다.

이중 도서관의 도서확보율은 1인당 40~50권 정도로 타대학에 비해 뒤떨어 지는 형편이어서 이의 극복을 위한 장서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도서 확충과정에서 현재 동양 문헌에 편중되어있는 도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서양문헌 위주의 확충도 고려해 볼만한 일이다.

실험 실습 설비 부분은 실험실습설비 증수의 확보정도, 실험실습설비 점수의 확보정도, 실험실습 설비 관리, 어학실습설비의 적절성 등을 평가 받게된다. 이중 필수설비를 기준으로 증수와 점수 모두 양호한 실

정이며 이의 관리를 위해 전문인력의 확보와 과학관기구 확충이 요구 된다.

마지막으로 후생복지시설부분은 기숙사의 규모, 학생회관의 활용상태, 학생식당 및 편의시설 구비상태, 교직원 식당 및 편의시설 적절성, 대학수련원의 시설 및 활용도, 의료지원 실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기숙사부분은 수용율 5% 미만으로 최악의 상태이다. 또 학생회관의 확충도 시급히 요구되어지며 학생회관내외 학생편의시설 설치도 필요할것으로 보인다. 편의시설의 관리도 공동관리위원회 설립, 관리도록 해아하며 식당의 음식종류도 다양하게 공급해야 할것이다.

이 영역은 시설·설비 영역과 마찬가지로 1백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확보 △예산편성 및 운영 △기획 및 평가 △인사 및 행정 △대학의 의사결정 등 5개 부분으로 나누어 평가하게 된다.

재정확보에서 최근 3년간 재학생 1인당 교육비는 2백84만5천원으로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대 인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학생 등록금 의존도 역시 80%선으로 등록금의존도가 높아 좋은 평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현가능하고 효율적이며 명확하게 확정된 장·단기 재정확보 계획 수립이 필요 할 것이다. 최근 3년간 기부금 비율은 총 수입의 2%선이며 법인 전입금 역시 불발한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기대하기는 힘들것으로 보여진다.

예산편성 및 운영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년도 예산집행 실적 이 충분히 분석되지 않고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과정이 부족하며 등록금 협상 등의 문제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3년간의 세출중 인건비의 비율은 57.91%로 대공회의 평가지표에 의하면 불량한 상태이나 실제 본교의 임금수준이나 기타 여러가지 상황을 분석해야 하는 부분으므로 단정내리기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기획 및 평가에서는 공식적인 장 단기 대학 발전 계획이 필요하며

기획부를 전담할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체평가를 위한 상설적 평가 기구의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행정 및 인사, 대학의 의사결정 등의 항목은 정성적 평가항목으로 특별한 평가의 적도가 없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이 부분은 평가항목을 정리한다.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행정 및 인사부분에서는 △대학 총장의 지도성 △행정조직의 합리성 △행정업무의 효율성 △갈등관리의 체제와 능력 △직원인사의 적절성 △지원의 학내외 연수 실적 등이며, 대학의 의사결정 부분은 △대학정책과정의 합리성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 △의사결정부서의 자율성 △인사제도 구성과 운영의 합리성 등의 항목에서 평가를 받게된다.

이상으로 미약하나마 대학종합평가 인정제의 평가항목에 따른 학교의 현실과 이에따른 대책을 제시해 보았다. 아무쪼록 이번기사로 대학 종합평가 인정제 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이석중 기자)

Advertisement for Hyundai featuring images of people working, a car, and a building. Text includes '18만 現代人의 참모습입니다.' and '현대자동차 세계 171개국 총 300만여대 수출'.

18만 現代人의 참모습입니다.

그들은 크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기간산업에 온 힘을 쏟아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큰 일꾼입니다. 그들은 넓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무기로 세계 176개국과 교역 HYUNDAI, KOREA를 지구촌 곳곳에 알리는 국제화의 기수입니다. 그들은 깊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무한 잠재력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그들이 맺은 넉넉한 결실을 이웃과 더불어 나눌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보다 풍요로운 삶을 실현키 위해 그들, 18만 現代人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선거와 이후 불교계 방향

월주스님 향후 4년간 불교개혁 지속적으로 이끌어야

이사회 개편·전입금 확대 기대 속단·학내주체 뜻모아 발전계획 요구 필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지난 2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투표로 끝났다. 송월주스님이 향후 4년간 총무원을 이끌고 나갈 총무원장에 피선됨으로써 불교개혁도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올해 초 서의현전총무원장의 3선연임기도와 정권이 일어난 3·29, 4·10법란을 계기로 불같이 솟아났던 종단개혁은 명실공히 불교의 자주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도한 역사적 흐름의 반영이었다.

정치권력과 일부의 부패정치승들에 의해 장악되어 뒤늦었던 한국불교에 있어 자주화는 민족을 위한 종교로 거듭나야 하며, 민주화는 전종교의 품으로 종단을 되돌려 받고 승가의 정정기풍 수립과 사부대중의 주인된 참여를 이룩하는 절대절명의 과제였다.

전국 사찰에 정권반대의 현수막이 일제히 걸리고 소장파 노장을 밀려낸 개혁파의 구성성원은 이러한 자주화와 민주화를 위한 초석이였다.

개혁파의 성과를 꼽으려면 가장 먼저 새로운 중핵·중흥의 통과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총무원장에게로의

권력집중이 분산되고 기복신앙으로 왜소화되었던 불교가 21세기 민족종교로 자리매김할 마스터플랜의 광범위한 수립이 보장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특히 새로운 선거법에 의한 중화구성과 총무원장 선출은 과정에서 나타난 폐단에도 불구하고 종단의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비록 직선제 관철이 안되고 재가불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헛점이 노출되긴 하였지만 이는 차기 종단의 과제로 해결할 문제이다.

제도적 개혁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인적·물적·정책적 개혁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계속적인 개혁의 첫걸음은 바로 이번 총무원장 선출이었다.

각 교구별 직선으로 뽑힌 중화위원과 24개 교구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이 함께 투표로 선출한 총무원장 선거는 몇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로 개혁을 앞당기는 점이 되었다는 점이다. 총무원장후보로 나선 월주스님이나 월탄스님 모두 공히 개혁의 프로그램 을 제시했다. 21세기 문명사의 대전환과

민족통일을 앞 둔 시점에서 한국불교의 나갈 방향을 개혁으로 맞추면서 나름대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못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점이 있지만 이후 극복되리라 본다.

둘째로 선거의 양상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아직까지도 제파와 인맥이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정책선거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물론 두후보자가 같은 문종의 사형사제간이라는 점이 작용한 했지만 '중도온건개혁' '보수라 불리워도 좋 다'라는 차별성속에 진행된 정책대결의 양상은 앞으로 발전전망의 제지 없는 종교집안 안에서 버티기 힘들다는 교훈을 남긴 것이다.

셋째, 선거과정속에서 특이할 양상은 공히 불교자주화를 내세웠다는 점이다. 한국불교의 쇠락이 결국 종교분리의 원인을 지키지 못하고 독재정권과 야합하여 국민의 의사를 저버린데 있음을 이제는 아무도 부인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결론이 이것이 선거에서만 표현되는 빌풍자 공약이라 하더라도 이 속에는 전종종

과와 출가스님들의 여망이 '자주화'에 놓여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총무원장 선거가 끝남으로 인해 곧 개혁회의가 해산하고 차기 총무원이 구성된다. 투표가 끝나자 월주스님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화할 조지와 신랑평책을 실시할 것임을 밝힌바 있다.

선거에서의 입장에 관계없이 또 승가와 재가의 구분없이 널리 인재를 등용할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명실공히 새로운 종단이 개혁종단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인적개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통일을 여는 불교, 새로운 문명의 시대를 선도하는 불교, 경제적 자립을 갖춘 '생산 불교', 전문인력을 고루 등용하는 불교로 거듭날 것임을 밝혔다. 이는 앞으로 새로운 종단이 이렇게 된다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불교집안 전체가 가야 할 좌표이다. 이러한 좌표를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이 불교계에 있다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무리이다. 여기서 우리는 종립대학이 가져야 할 역할을 찾을 수 있다.

조계종 산하에는 현재 20여개의 종립대학이 있지만, 4년제 종합대학은 동국대학

과가 유일하다. 한국사학이 처한 현실속에서 나타나는 모순이 동국대학교에서도 관철이 된다. 그러나 차기종단이 시작되면서 종립학교 개혁에 대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전망이다. 재단이사회의 개편이나 재단전입금의 확대가 급속히 이루어지리라 기대는 물론 속단이다. 하지만 동국대학교 차원에서 학교·교수·학생·직원들이 뜻을 모아 학교발전계획을 종단에 강력히 요청한다면 포교의 활성화와 인력개발을 도모하는 종단의 방향과도 일치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불교발전, 차기개혁종단의 사업은 특히 많은 인력을 요구하고 있다. 불교 또한 종교인 바 종립학교에서 배출한 인력을 등용할 것임은 자명한 것이고 가능성은 크다. 그러나 동국대학교의 현재 모습은 이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문제나 종립대학의 특성이 발견되지 못하고 있음이 이를 증명한다.

21세기 민족종교로 도약하기 위한 불교계의 흐름속에 이번 총무원장 선거가 전환점이 되었다면, 종립대학으로서 동국대학교의 전환은 더더욱이 요구된다하겠다.

정한신
(실천불교승가회간사)

시사 초점

12·12국회파행 해결국면안보여

12·12관련자 처리문제로 국회는 18일 제 정국파행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지난 22일 단독으로 국회본회의를 열기로 결정하여 국회는 다시 긴장국면에 접어들었다. 민주당의 이러한 결정은 상임위에서 본격적 법안 심의를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번주말부터 전국 주요 도시에서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다. 또한 이기택 대표는 24일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장외투쟁을 선언할 방침이다.

그동안 여야는 이 문제로 기인된 정국파행상태를 영수회담을 통해 풀자는 방침이었으나 현 상황은 여야가 각각 단독 국회운영과 장외투쟁을 공언하고 있어 강경대치로 인한 정국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영수회담에서 국경전변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한다는 데는 여야가 입장을 같이하고 있으나 회담의제에 관한 견해차가 워낙 커서 영수회담의 성사자체부터 불투명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부)

◇전국대학 총학생회선거 결과 분석

공안파동 후유증으로 선거일정 지연 비운동권 약진속 정치적 쟁점 형성 못해

전국 182개 대학의 새로운 일꾼을 선발하는 총학생회 정·부회장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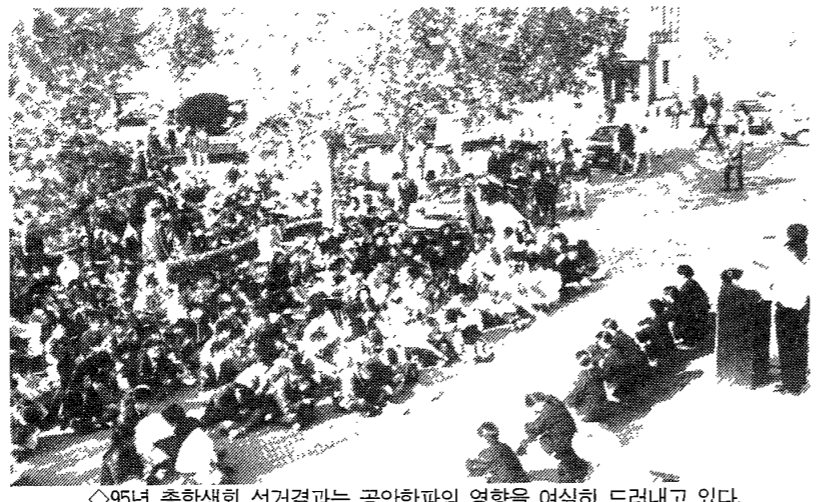
11월 첫째에 후보등록이 마감된 대부분의 전국 총학생회선거는 거의 모든 대학이 오는 30일까지는 투표함을 개봉하게 된다.

95년 총학생회 선거의 대외적 특징은 올 한해 대학가에 물아다친 공안파동에 따른 영향을 먼저 꼽을 수 있다.

박종 총장의 주사파 발언을 정점으로 보수언론등의 집중표적이된 한총련으로 대표되는 학생운동진영의 학생회 선거공약이 학생 대중들의 평가를 받게되는 가 시적 계기가 대내적으로는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커다란 호응을 얻고있는 경실련 학생회 및 비 운동권 학생회의 진솔정도여부가 관심의 초점으로 모아졌다.

또 예년과 다른 올해 학생회 선거의 모습은 공안파동의 후유증이라 할수 있는 기존 학생회의 위상 위축으로 인한 학생회 선거일정의 지연을 들수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전국 대학 총학생회 선거의 결과는 서울·경기지역의 경우 경기대, 동국대, 성균관대, 상명여대등의 대학이 NL(민족해방)계열 총학생회가 당선



◇95년 총학생회 선거결과는 공안파동의 영향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되었으며 항공대, 인하대, 수원대등의 PD(민중민주)계열, 외대용인캠퍼스등이 비 운동권 총학생회가 당선되었다.

전국적인 분포를 살펴 볼때 현재 집계 가 끝난 62개교중 △NL계열 40개 (65%) △PD계열 6개 (10%) △21세기 진보학생연대 3개 (5%) △비운동권이 13개 (21%)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의 총학생회 선거결과를 종합 해볼때 작년 학생회 선거에서 보여졌던 비 운동권 학생회의 약진과 전체적으로 공약사항에 있어 정치적 사안보다 학내복지사안이 중점적으로 개선되고있는 상황 을 볼수 있다.

다양한 학생대중들의 이해와 요구, 정치 적 사안에 대한 무관심과 희석화등 변

화된 시점에 따른 결과로 분석되는 이러한 현상은 정치적 쟁점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필연적일수밖에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공안정국의 여파로 올해 총학생회 선거에서 고전하리라 예상했던 운동권 학생회가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침체의 우려를 씻어냈다.

학생운동의 총괄적 평가의 장이 되리라는 예상속에서 '주사파 파동'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논쟁이 학내에서는 재현되지 않은것이다.

이는 학생운동진영에서 학생회의 역할 과 대중을 각 부분의 주체로 세우려는 다양한 논의들과 새롭게 제기되는 변화의 노력이 이른바 '심판장'이 되리라는 올 총학생회 선거에서 유효한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 및 전국 대학선거가 아직 끝나 지 않은 시점에서 올해 전국 총학생회 선거의 모습은 △순추 전국시대를 방불케하는 각계각색의 학생회 등장 △교육시장개 방등 학내사안위주의 공약제기 △후보자 나 후보자가 속한 조직에 대한 이미지가 선거의 당락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재환기자)

동막로 물이 투표

느즈막 선거분위기가 웬 썰렁(?) 아침 저녁으로 목이 터져라 "열심히 하겠습니"라고 외치는 후보자들의 각오와 다짐이 온방골에 울려 퍼지고 있다. 그러나 후보자들의 열기와는 상반되게 학생들의 반응은 차분하다 못해 냉랭하기까지 하다.

지난 10일 단대학생회 선거는 예상을 훨씬 상회하는 투표율을 기록하며 당락을 결정했다. 불교문화대 82.3%, 상경대 80.7%, 의과대 87.7%의 투표율. 숫자상으로만 본다면 많은 학생들이 각 단과대 일꾼들을 찾는 일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투표 당일, '깨끗한 선거'를 다짐했던 선거유세 때와는 달리 투표장 주위는 물불 가리지않고 투표용 울리기에 급급한 선거원들의 열면 경경이 눈길을 끌었다. 물이투표, 때거리 투표.

"자꾸 해라해라 그러니까 부담이 돼요" 한 여학생의 불평이다. 물론 자신의 권리까지 포기하며 투표를 하지 않겠다면 누구도 이질수 없는 일이지

만, 권유가 아닌 강요에 의한 선거권 행사는 강요하는 측이나 행사하는 측이나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해마다 학생회 선거에 따른 무수한 정책과 공약들이 보기 좋게, 듣기 좋게 포장된 채 이곳저곳에서 쏟아진다. 온방골의 상황과 현실 또한 해마다 개선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뾰족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한 채 전대의 답습에만 그치고 있다. 선거를 위한 선거는 반드시 그에 따른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1년 사업을 마무리하는 학생회와 1년 사업을 준비하는 학생회가 나란히 서있다. 양면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총학생회와 각 단대학생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고 한해의 사업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일(24일) 총(학)학생회에 대한 마지막 한번의 선택이 남아있다.

(문헌화 기자)

블루, 화이트, 레드 프랑스는 그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준연기’ ‘재협상 촉구’는 최소한의 요구이자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프랑스는 그들의 정신적 자산인 ‘문화산업’을 지키기 위해 정부, 국민 가릴 것이 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신적 고향인 농촌을 지키기위해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소달구지를 모는 할아버지 그리고 농촌 우리는 얼마나 지켜내고 있습니까.

새날을 여는 민족자주론의 선봉 전국대학신문기자 연합

최근 백두산에 관한 관심이 많아진 것 같다. 특히 중국의 신화사 통신의 백두산이 얼마되지 않아 폭발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는 후부터 더욱 그렇다.

이에 여기서는 백두산의 지형과 지질에 관한 간단한 이야기만 해보도록 하겠다. 우리민족에게 있어서 백두산은 실제 이상의 상징적이고 선연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개국 설화, 그리고 옛 조상들의 활동무대였던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백두산은 우리나라 최고봉의 산이다. 최근까지도 화산활동을 하였던 산으로 산의 북쪽으로는 장백산맥이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2천미터 이상의 산들이 여러개 있다.

백두산의 형성시기는 신생대 제3기 말 경인 2백60만년전에 있었던 화산활동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화산활동이 있기전에 백두산일대는 매우 낮고 평평한 곳이었으며 대지의 상대적인 고도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다. 이 당시의 평원과 같은 1천5백미터 정도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후 현재와 같은 화산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신생대 제4기초의 화산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때 가장 큰 현무암 대지를 형성하여 현재의 높이 2천7백44미터의 윤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백두산을 휴화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화산활동이 중지되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백두산 부근에는 현재에도 최고 82°C 정도의 온천이 상존하

백두산 화산폭발 가능성

휴화산으로 언제든 재폭발 가능

부근 82°C 온천상존·간헐적 가스분출

고 있고 분기공에서는 비록 간헐적이기는 하지만 가스가 분출되고 있으며 소규모의 지진이나 산지 사면의 붕괴같은 현상은 현재에도 화산활동이 진행되고 있음을 잘 알려주는 좋은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화산이 폭발하는 형식에는 두가지 종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중심분출이고 다른 하나는 열분출이다. 백두산의 경우 이 두가지 방식의 용암분출에 의해 현재의 백두산체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북동, 북서, 동서 방향의 많은 단열대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교차하는 열점에서 마그마가 분출한 것이다. 또한 백두산의 지층은 상층에는 많은 화산회암이 존재한다. 연변에서 백두산까지 지형은 몇개의 계단 모양의 단을 또한 백두산에는 여러 종류의 지형들이 나타나고 있다. 천지의 의문산에 해당하는 사면에는 빙식지형의 흔적인 권곡등의 모습이 보이고 최근에는 1천6백70미터 고도에서 빙하에 의한 퇴적물이 발견되고도 하였습니디. 따라서 백두산의 지형은 방화지형내지는 주변하

지형에 속하였던 곳으로 생각할수도 있고 화산활동과 관련하여 화산지형으로 분류할수도 있다. 그러므로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백두산의 지형을 생각하는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보겠다.

백두산에서 볼수 있는 또다른 지형으로는 풍식지형의 예이다. 백두산에는 강한 바람이 매우 자주 불며 주먹만한 돌들이 날라다니는 예도 있다. 그결과 풍식에 의한 구멍 풍식바위, 풍식기둥과 같은 지형이 나타난다. 하천유수에 의한 지형의 예로는 많은 폭포와 급류등을 들 수 있다. 장백폭포의 경우 수직낙차가 68미터나 되는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송화강의 원류를 이루고 있다. 계곡의 형태도 보통 V자형의 곡은 물론이거니와 이 지역에서는 수직절벽과 같은 하곡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천지 주변에는 호수 침식에 의한 지형을 볼 수 있다. 천지에 파도는 심한경우 1미터 이상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파도는 천지호수의 벽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호수의 많은 절벽을 만들어 놓

고 있다. 구두 지형의 가장 두드러진 형태는 백두산 전체를 통하여 단층들이 방사상으로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여러 방향으로 나타나는 단층군들은 그 지역이 침식에 약하게 하는 구조적인 조건을 마련해 주기도한다. 백두산 입구에서 비룡폭포 쪽으로 접근하는 곡의 양안에는 전형적인 예추사면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예추는 주위의 암석보다 강해서 침식과정이 일어나는 것보다 과상으로 무너져내려 이렇듯에 쌓이고 또 이동해 내는 현상이다. 지형학 쪽에서는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예추의 형성시기를 옛날석기지역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나 백두산에서 나타나는 예추사면에서 있어서는 현재에도 계속 이렇듯으로 무너져내리고 있으면서 산사면의 경우 안정성을 유지해가고 있다.

다음은 천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해발 2천7백55미터, 남북길이 4.55킬로미터, 동서길이 3.35킬로미터 수변면적이 9.82평방킬로미터이다. 평균수심 2백13미터이고 최고 수심은 3백44미터이다. 최저 기온은 영하 47.5도씨이고 최고기온은 18도씨이다. 최고풍속은 초속 60미터이고 강수량은 연평균 1천4백 밀리, 식물은 2백여종이 서식하며 주변둘레가 14킬로나 된다.

천지의 수온은 대기로부터 공급되는 강수와 강설 및 지하수에 의한 것으로 이렇게 보충되는 물과 땅속으로 스며드는 물이 균형을 이루며 수심 깊숙이 1.67미터에 이른다. 천지의 형성시기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천지주위에는 16개의 봉우리가 있으며 기후가 자주 변하기 때문에 부근에는 항상 습기가 많고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 바람이 일며 짙은 안개가 끼며 구름이 몰려 오기도 한다. 지금까지 천지에 관해서는 잘못 알려진 경우가 많다. 그중에는 하나는 천지가 단순히 하나의 분화구로 되어 있으리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본인의 관찰에 의하면 백두산의 화산폭발의 시기나 횡수등을 고려해 최소한 3~4개

이상의 화구가 연합되어 현재와 같은 화구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 이유는 천지호수의 윤곽이 지극히 불규칙적이며 용암류의 방향이나 퇴적물들의 특성, 천지 주변의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볼때 그러한 결론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또 한가지는 천지호수에서 동쪽으로는 두만강이 흐르고 서쪽으로는 압록강이 흐르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천지호수에서 천지 밖으로 나가는 수로는 정백폭포로 이어지는 송화강의 원류밖에 없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은 다른쪽사면에서 흘러내리고 있음을 분명히 해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백두산은 일반적으로 휴화산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고 최근에 일어난 일본이나 필리핀등에서 일어난 화산 폭발과도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백두산에는 여러 형태의 지형이 나타난다. 즉 화산활동의 흔적이 남아있는가 하면 빙하 지형의 흔적들이 존재하고 구조 현상과 관련된 지형들이 산재해 있다. 따라서 백두산의 지형은 종합적인 입장에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천지의 형성은 수차례의 화산 폭발에 의한 화구가 연합되어 무너져버린 흔적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앞으로 천지가 언제 다시 폭발할런지는 몰라도 다시 폭발할 가능성은 여러가지 상황으로 비추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김주환 (사범대 지교과 교수)

박사의 원종문류집해

서술, 자신견해 회통형식으로 전개 인분가설·과분불가설 논의 필요

원종문류집해는 박사의 찬술이다. 원종문류집해는 고려 11대 문종(1046~1083재위)의 내제 아들인 의천대각국사(1055~1101)가 찬한 원종문류를 집해한 것이다. 이 책은 일본의 사학자였던 금서용박사가 교수로 재직하고 있을때에 수집하여 소장하고 있다가 사후에 천리대학에 기증되어 현재 일본 천리대학 도서관 금서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1959년 경도대학에서 발간한 금서문고목록에도 수록되어 있다. 간행자 필자에게 전해 받은 것이 인연이다.

김진교수는 이 책을 읽고 '오자' 또는 '읽기 어려운 글자'는 친절하게 모두 교정을 보여 함께 기재하였다. 뿐만 아니라 박사의 상세한 전기는 알 수 없지만 최선한의 '용두산용수사개창기·고려사', 이인로의 '파한집', 최자의 '보한집' 등에 의해 박사의 연대를 추정하여 구백대학교학부연구기요제52호에 투고했다.

김진교수의 설에 따르면 박사는 보조 지눌(1158~1210)스님보다 약간 선대의 인물이라고 설명하고 박심을 의천대각국사-무애대각국사계승-석운-박심의 순서로 그 계보를 밝히고 있다.

박심의 원종문류집해는 원래 상·중·하 전3권으로 찬한 것이나 현재는 중권만이

남아 있다. 가까운 세월을 누군가에 의해 상·하도 발견되어 모두 갖추어 완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김진교수는 박심이 원종문류집해를 찬술한 연대에 대해 밝히기를 용두산용수사개창기에 주지석운이 명종3년(1172)에 입멸한 뒤 이를 계승하여 제3대 주지가 된다. 대정21년(1181)에 용두산용수사개창기의 석비가 건립될 당시 박심은 이 절 주지에 임하고 있었다. 이 책 서두에 원종문류집해원종해동백산전교사문 박심 집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대백산각화사에 머물러 있던 때의 찬술로 추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책에는 성화4년 술자제조 선국간경도감본교역개성부중수라고 쓰여 있어 이조 성화4년(1468) 개성에서 간경도감에 의해 중수된 것이다. 고려 대각국사에 의해 원종문류가 찬술되어 이난다시 박심에 의해 집해되었고, 이조 성화4년에 중수하였더라면, 고려에서 이조까지 화연에 관한 연구가 성행했음을 입증하고 있다.

간경도감은 이조제7대 세조7년(1461)에 설치하여 제9대 성종2년(1471)에 폐지된 때까지 11년간 계속되었다. 이 때에 중수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원종문류 전2권을 3권에 집해한 것이라면, 이는 원종문류 22권 전체를 집해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원종문류집해원종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당법장(643~712)의 화엄경담 천기 20권에 대한 집해라고 볼 수 있다. 중권 전체의 내용은 △중요의 △초화이지의 △극도해의 △중국의로 분류하여 집해했다. △중요의는 탐연지에서 보살심지공에 대한 문제를 서술한 것으로 박심은 다른 것 보다 가장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박심 자신의 사상을 교묘하고도 명쾌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고대 많은 화엄학자들이 가장 심중하게 다루었던 인분가설 과분불가설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박심의 견해가 어떻게 표명되고 있는가를 검토 정리할함으로써 박심의 원종문류집해가 갖는 화엄사상사상 그 위치를 알 수 있는 요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박심의 서술방법에 있어 특이한 점은 먼저 탐연기의 원문을 제시하고 이를 해석함에 있어 중간(738~839)의 화엄경소와 연의초의 견해를 가장 많이 도입하고, 자신의 견해는 삼입형식으로 하여 화통해간다. 그리하여 자신의 결정적 견해표명은 단호하게 내리는 확실성을 나타내고 있다. 단지 해동의 화엄초조라 할 수 있는 의상(625~702)의 견해는 삼입하지 않는 반면, 원효(617~686)의 심원화정론·중요등을 인용하고 있는 점이다. 박심은 자신의 견해를 화통형식으로 밝히기위해 원효의 논법과 사상을 중시 하였음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앞으로 우리 불교문화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자료수집에 모두의 마음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신현숙

(불교문화대 불교학과교수)

과학에세이

인터넷, 무한한 서비스 보고

인터넷, 무한한 서비스 보고 때문이었다. 처음으로 접속한 나우콤의 인터넷, 거기에서 나는 외국인과의 대화를 시작했다. 처음 대화에서 나는 나의 영어실력에 기죽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다음부터 영어 사전을 준비해 놓고 채팅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쓰는 속어나 줄임말은 알아볼 길이 없었다. 그래서 상대방에 되물곤 했던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이렇게 몇번을 대하니 이제는 얼마간의 요령이 붙었다. 그래서 말도 줄여서 간단히 하고 많은 질문을 하게 되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대화는 POM이라는 nickname을 갖은 lyes kiou라는 프랑스인과의 대화였다. 처음에는 서로 간단한 인사를 주고 받았다. 그러다가 서로의 나이에 대해서 들었다. 이야기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학생이고 25살인데 high school에 다니고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프랑스의 교육제도가 우리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한참을 이야기 하다가 이번에는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었다. 자기는 한국 여성을 좋아한다고 말하고는 바로 그쪽에서 여자친구의 sex매너는 어떠한지 물어왔다. 이내 나는 이 사람이 인종은 부류의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다. 그러나 나빠 인사만 하고 바로 접속을 끊어버렸다. 하지만 접속을 끊고 곱씹어 생각해 보니 프랑스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의 차이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처럼 외국인과의 대화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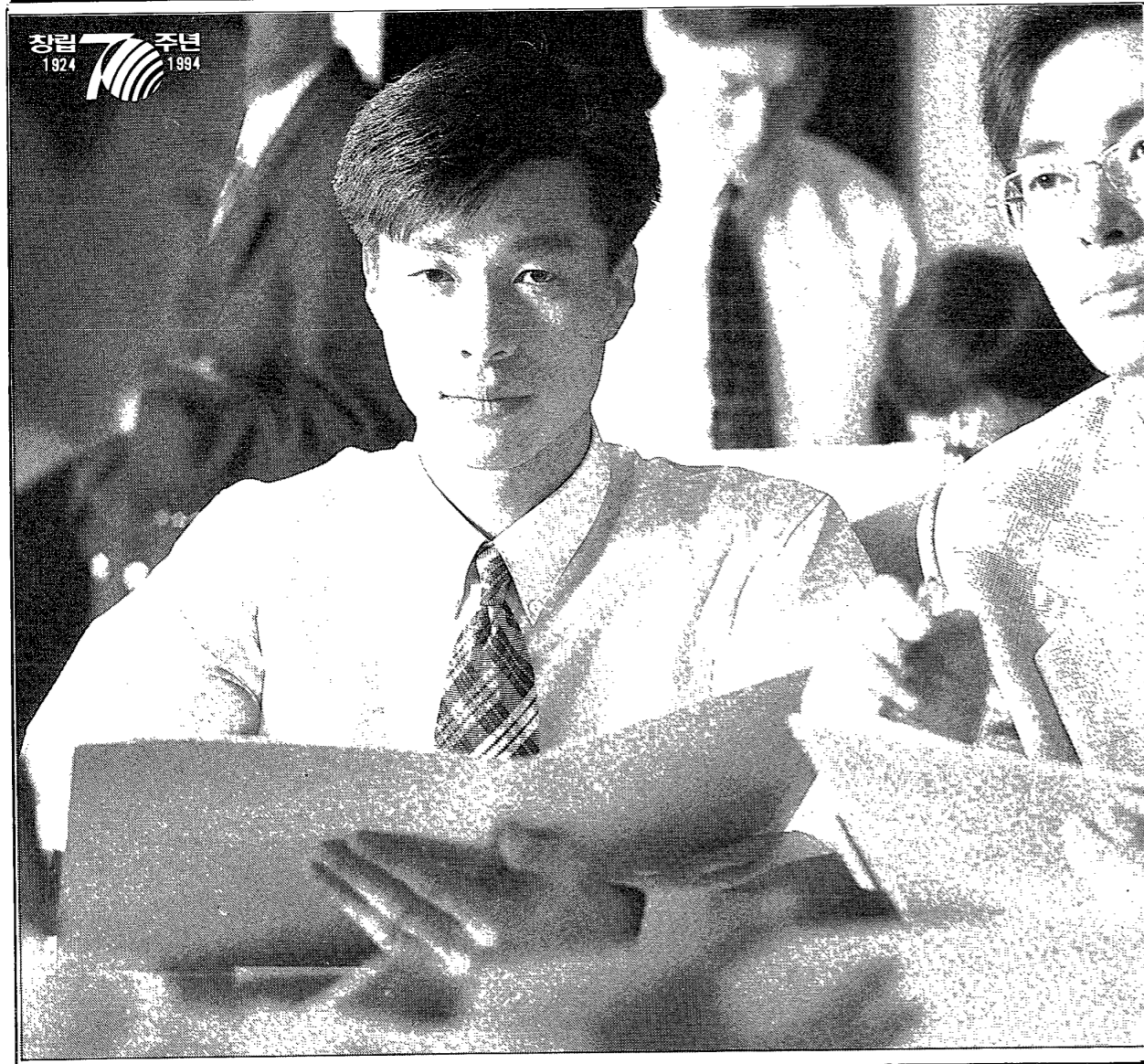
컴퓨터이야기

통해서 우리는 각각의 다른나라의 문화를 배울수도 있고 영어 실력도 늘릴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 외에도 인터넷에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WWW라는 기능을 이용해 인터넷을 더 편리하게 사용하던가 어떤 한발씩 기다리면 해외의 팬 편지를 이제는 전자메일을 이용해 하루에도 몇번이고 보내고 받을수가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수많은 인터넷의 기능들이 있다. 하지만 이시간에 그것들을 다 이야기 하지는 않겠다. 서점이나 국내 통신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인터넷에 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이와같은 인터넷 사용에서 나 자신이 가장 기쁘고 활용한 것은 내가 서강대의 컴퓨터를 이용해 NASA의 자료를 검색했던 것처럼 인터넷상의 세계 모든 컴퓨터를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터넷은 우리에게 무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루 빨리 인터넷에 접속한다면 그 사람의 삶도 또한 그만큼 넓어지고 무한해 진다고 할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것을 만족시키기엔 참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중에서 대학이라는 곳조차도 학생들의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니 참으로 문제가 아닐수 없다. 그러나 나빠 인사만 하고 바로 접속을 끊어버렸다. 하지만 접속을 끊고 곱씹어 생각해 보니 프랑스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의 차이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처럼 외국인과의 대화를

유상현

(이과대 물리학과 자연과학연구원)



인재를 찾으려고만 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스스로 인재를 키워냅니다



추천,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등 수많은 과정 끝에 육성을 거치지만 때론 기업 스스로의 무관심이 애써 찾은 인재를 오히려 도태시켜 버립니다. 인재는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열을 가지고 기업 스스로 키워내야 합니다. 삼양그룹의 신입사원은 사회적 입문을 위해 해외연수를 비롯, 6개월간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자기개발과 자신의 적성 개발을 도모합니다. 또한 2년차 이상의 사원들은 3개월간 현업에서 완전히 떠나 본인이 계획한 교육과정 (Future Leader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국제화시대를 앞서갈 21세기 미래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삼양그룹은 신학원들의 차원에서 매년 (대학생 해외 여행연수 및 기업연수)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88년부터 21회(전국대학생 논문현상공모)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 주식회사 삼양사 (화학, 식품, 사료, 화학, 환경사업) •삼양중기주식회사 •신일포도당주식회사 •삼남석유화학주식회사 •삼양화학주식회사 •신원제분주식회사 •삼양종합금속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양메디칼 •디안 삼양 피아제 •삼양그룹연구소 •양평회 •수당양평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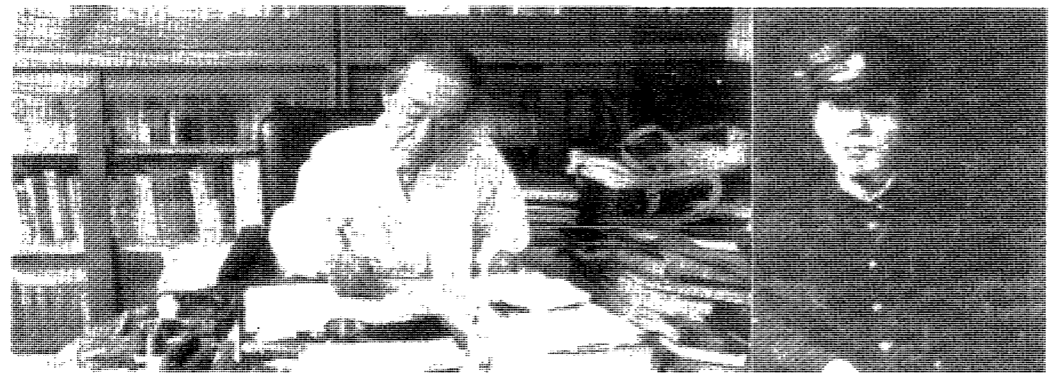


미당 서정주시인 팔순기념행사 '인생 여든 해, 시 예순 해' 시세계 재조명 학술회의·장수기원 축하연 열릴 예정 "시작(詩作)인생 환갑잔치마련 후배에게 감사하고 오감할 뿐"

미당의 모습에는 신(神)적인 풍모가 엿보인다고 누군가 말했다. 어느덧 올해로 팔순을 맞는 미당 서정주시인을 축하하는 자리가 될 '인생 여든 해, 시 예순 해' 행사가 동국문학인회, 총동창회주최로 오는 12월 2일 인터콘티넨탈호텔 대연회장서 열린다.

팔순축하연 준비위원회의 한국문학연구소장 홍기삼(국문학) 교수는 "우리 문학계 전반에 원로문인을 존경·우대하는 풍토가 일반화되어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본교출신으로 현재 종신명예교수로 계시기까지 본교와 뗄 수 없는 인연을 지니며 한편으로 학배영예를 드높인 선배문인에 대한 후배들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이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미당 서정주시인은 이 행사를 맞아 "후배동문들이 이 일방적인 사랑의 팔순잔치를 마련해준데 대해 나로서는 오감하고 감사할 뿐"이라며 "나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지닌 후배가 배출되기를 바란다"는 말도 아울러 덧붙였다. 스스로 건강관리에도 철저하다는 서정주시인은 앞



◇미당은 팔순의 나이에도 여전히 왕성한 창작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1935년 중앙불교전문학교 재학시절의 미당.

으로도 술이 다할때까지 글을 꾸준히 쓸 생각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노시인의 숨은 열정을 볼 수 있었다.

중앙불교전문학교로 본교와 인연을 맺기 시작한 미당은 우리대학을 '우리고향중의 고향이여'라는 시로 표현한다.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져 들어가 살던/그 연꽃 내용새가 나고/목을 베니/젓이 나 솟았다는/성(聖)이차 본의 강소리가 늘 들리고.....'

인생 여든 해, 시 예순 해'행사는 미당 시를 재조명하는 자리가 될 1부 학술회의와 2부 축하연으로 진행된다.

본교 한국문학연구소 주관하는 학술회의는 '미당 시의 영원과 현실'에 대해 발표할 서울대 오세영교수 등 4명의 주제발표에 이어 홍신선등 4명의 질의및 토론이 있다.

유재용 국문과강사는 '바람과 종류에서' '미당 시에서 바람은 이미 지이자 모티브이고 미당 자신의 생

명중동의 형이상학이다'라며 "미당의 바람과 종류는 한국시의 역설과 비전을 동시에 체현한다"고 밝힌다.

'서정주의 초기 시에 나타난 미적 특성'을 발표하는 이승훈 한양대교수는 "서정주의 초기 시가 보여주는 미적특성은 한마디로 갈등의 구조라고 부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갈등이란 단순히 이질적인 두 요소의 대립·모순의 관계가 아니라 갈등이 끊임없이 지양되는, 그러면서도 또한 갈등을 생산하는 특이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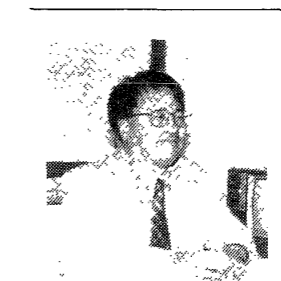
변증법적 양상을 보여주는 그런 갈등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그 예로 '문'을 들고 있다.

한편 황현산 고려대교수는 '서정주 농경사회의 모더니즘'을 통해 '미당의 문학사적 위치는 그 정서의 깊은 뿌리를 농경사회에 두고 있으면서 근대적 시의 개념을 깊이 이해한 사람의 처지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서구 근대시에 대한 뛰어난 감수성에 힘입어 전통적·농경적 세계의 정한에 새로운 표현양식을 부여하고 그 깊이를 되살려내는 한편 이 이입된 근대시의 정서에 민족적 감수성의 일단을 부여하여 그 육체로 삼았다"고 밝힌다.

2부의 축하연에서는 박재천동문시인의 '시로 읽는 인생 여든 해' 낭송에 이어 미당시 '자화상', '귀족도', '추천사들'을 연극인 손숙씨등이 낭송한다. 이외에도 이길주교수의 출, 가수 송창식씨의 '푸르른 날' 노래, 안숙선씨의 축하관소리 등이 이어진다. 한편 축하연 참석자에게는 한국문학연구소 편찬한 논문집 '미당 연구'를 증정한다.

1936년 동아일보에 시 '벽'으로 등단한 이래 시작(詩作) 나이로만 처도 환갑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처도 그의 문학적 업적을 되새기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노시인에 대한 장수를 축수함과 아울러 동국문학 발전을 모색하고 다짐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김소영기자)

달 하나 천 강에 사람답게 사는 법



약 3년전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나는 우연히 "번다"라고하는 사형집행 실태를 알게 되었다. 번다는 3명의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죄목으로 사형되었다. 몇십년만에 처음으로 교수형이었던 때문에, 많은 언론에서 이 사건을 관심있게 다루었다. 번다 자신은 사형집행 하루전까지 기자회견의 인터뷰를 거절하다가 사형집행 몇 시간 전에야 비로소 인터뷰에 응했다.

왜 어린이들을 살해했느냐 라는 질문에 죽음의 앞에선 그는 진실로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그 자신의 불우했던 삶을 이야기했다. 결론가정에서의 그의 불행했던 어린시절, 그의 왜소한 신체와 공부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위의 친구들로부터 놀림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이들에게 해를 가함으로써 무언가 자신의 존재를 느끼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나는 그때 이 사형수와 내자신이 과연 크게 다르다고 스스로 반문한 적이 있었는데 나는 솔직히 다르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었다. 그저행 행동으로 옮기진 못했지만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내자신이 그러한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면 나 자신도 그렇게 되지않는다는 자상이 없다.

우리가 원하는 원하지 않은 우리는 관계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수많은 사회적 관계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세가지 종류가 있다고 한다. 첫번째 종류는 공동체에 누를 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며, 두번째 종류는 겨우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유형의 사람들을 말한다. 세번째는 자신과 자신가족에게도 충실하지만 남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세번째의 유형을 말한다. 진실로 사람답게 사는 사람은 아마도 이 세번째 유형에 있는 그들이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이 세번째 유형의 사람들처럼 살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먼저 스스로 자신의 권리와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고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본인의 태도와 행동에서 낮아지는 겸손함을 가져야 할 것이고, 동시에 우리는 이 사회에 빛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두번째는, 격려하는 사람(encourager)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상대방의 생각이나 아이디어에 쉽게 냉소하고, 심지어는 남의 결정을 보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중종 격려의 말 한마디, 칭찬의 말 한마디가 힘과 협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세번째는, 자신의 권위를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중종 우리의 관계는 미움과 증오 혹은 갈등으로 가득차 있다. 네번째는 착각하며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용기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사회가 더욱 병들어 가는 것은 상식이 통하지 않고 진실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악한 인간일지라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진실을 따르고 진실앞에서 약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용기와 올바른 신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이야 한다. 자신의 자아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남을 돕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자아를 방어하는데 그의 모든 에너지를 쏟고 남에 의하여 쉽게 상처를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은 순수하게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돕는 것일 수도 있다.

박 중 회
상경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경주캠퍼스 동국문학은 15년이란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으나 그동안 적지 않은 문인들을 배출했습니다.

동국문학의 거대한 산에 비해 아직은 밟아낸 땅에 지나지 않으나 앞으로 경주캠퍼스 문학의 발전 가능성을 볼 때 '동국문학의 현주소를 찾는 이 시점에서 경주캠퍼스 문학의 전통을 되새기는 일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집자

동국문학의 빛나는 전통, 그 거대한 뿌리는 불교문화가 1천년이나 만개, 현재까지 그 잔영이 생생한 경주교정까지 뻗어내렸다.

1979년 첫 신입생을 받은 이래 교수와 학생들은 동국문학의 영예로웠던 한때와 현재를 늘 짊어지고 다녔다.

동국문학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경주교정도 동국문학의 한편을 떠받쳐야 한다는 부담감은 곧 문학에 대한 열의로 나타났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보겠다는 학생들은 전부 '동국문화회'로 몰렸다.

초기 몇년동안 서울교정과 같이 절을 옮겨가며 가졌던 '여름창작교실'에서 경주교정 문학지망생들은 동문선배들로부터 동국문학의 전통을 수혈받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81년 윤성근이 '월간문학'을 통해 첫 발을 문단 안으로 들여놓았다.

그후 몇년간 소식이 없는데 80년

◇경주캠퍼스 동국문학의 현주소를 찾아서 '동국문화회' '시선' 동인통해 문학적 열의 발산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학의 동량이 될 가능성 지녀

대 증반을 맞게 되었다. 졸업생이 생기고 학생수가 늘어나면서 제과 권력으로부터 비롯된 한국적 현실을 비판할 수만은 없다는 자각이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경주교정에 전연되었다.

이러한 기류는 지금까지 내려온 것, 당시 상황 모든 것에 대한 현실적 반성을 요구했으며, 기존의 동국문학전통까지 의심케 했다. 종래의 것만으로는 현실을 감당해 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갖들인 시대적 반성이었다. 이러한 위기감과 의심을 갖기 시작할 무렵, 하성훈이 시로 '한국문학'을 통해 덜컥 문단에 진입했다.

이 기회에 명멸해가는 문학의 전통을 다시 찾아야겠다는 뜻을 모아 녹야원에 몇몇이 모여 '시선'이란 동인을 만들었다.

모이고보니 구성원들은 쓸데없이 나이를 먹어서 진화했거나 한구석이 모자란 불구자(?)가 대반이었다. 도서관 영인본을 뒤져 지나간 죄과 문학을 복사하고 술판과 싸움질, 방만한 자취생활, 험물만 남은 허허벌판 유적지에서 기행등 졸업 후 취업과 무관한 생활과 학업을 계속해

일하듯 슬하에 뛰리고 다니는 문학적 치기만 계속했다.

그러다 86년 필자가 '동국문학'에 시를, 87년 백규홍이 '소설문학'에 시를, 88년 정병근 송종욱이 시와 시조를 '불교문학'에, 89년 남효선이 '문학사상'에 시를, 90년 이윤학이 '한국문학'에 시를 발표하며 문단에 적을 두게 되었다. 모두 '녹야원'의 결의를 다졌던 동인들이었다.

이에 앞서 회곡으로 신춘문제를 통해 등단한 한기철이 있었고, 조중희가 대구매일 신춘문에 소설로, 박경화(시조), 윤희순(시), 김명석(시) 등이 문예지를 통해 얼굴을 내밀었다.

현재 시작활동이 가장 활발한 윤성근은 이미 여러권의 시집으로 광역화한 인식세계와 변화무쌍하고 어지러운 상상력으로 예리하게 현실을 요리해내는 특유의 시적 성취를 이루고 있다. 평단에서는 일찍부터 윤성근에게 일상성과 시기에 대한 '폭넓은 시성'을 가진 시인으로 '날카롭고 비범한 상상력을 과시'하고 있는 탁월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산 등 자연의 의양, '자연과의 친화력, 또는 근접성'을 통해 인간사의 사정을 '정감하게 투영'해내고 있는 백규홍의 시 역시 필자가 주목하고 있는 바다. '어두운 풍류의 자아를 친숙한 자연을 매개로 시인의 내면을 드러내는 백규홍의 시는 서정의 백미다.

낮고 하얗은 대상과 삶, 집단의 삶에 따뜻한 시선을 던지고, 그들의 희망과 기다림을 위하여 끝없는 몸놀림을 하는 남효선의 시편들은 절박하고 날카로우면서도 독자적 희망을 보여준다.

삶에 대한 진지하고도 쓸쓸한 성찰을 담고 있는 이윤학의 시는 '유연한 상상력의 반추'를 통하여 아름답게 삶의 주변을 변주하고 있다.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이윤학은 첫시집을 통해 '동들의 상징, 혹은 비유의 탁월한 효과를 알리고 리를 통해 삶의 외곽된 부분을 상기시켜 준다. '동'을 알레고리의 가능성을 독특하게 탐지해내는 이윤학은 내밀한 일상의 성찰을 통해 자아와 세계 사이를 내면고백으로 친철했다. 비취주는 미덕을 시에서 보여준다.

'독특한 상징공간을 재창조'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던 정병근이나 정형이라는 전통적 형식에 현실성을 얻기 위하여 '시대의 예민한 삶의 현장'에 눈을 돌리는 송종욱의 시조도 불만하다. 송철수는 '자연과의 교감'을 가지고 아름다운 불교적 직관 세계를 가꾸고자 노력한다.

전통은 쌓아가는 것이다. 이들의 작품 하나하나를 분명히 동국문학에 특별한 한장씩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확산 속에서 아쉬움이 많다. 이미 문단에 얼굴을 내민 사람들이 각고로 자기를 갈아내고 뛰어내는 노력을 달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후배들의 문학에 대한 열의가 예전같지 않다는 소문이 돌리기 때문이다. 또 문학특기생이나 문예강좌등 등 전통에 걸맞는 학교당국의 정책적 노력도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는 희망 때문이다. 그렇지만이 동국문화회라는 큰산에서 빛나는 전통을 자랑분으로 우람한 나무가 많이 자랄 수 있을 것이다.

공 광 규
(시인·국문 88월)

알 림
'동국문학의 현주소 찾기'는 지면관계상 한주입니다. 다음 신년호(제1164호)에서 필백작가와 중론을 함께 실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21세기 종합금융그룹

대한교육보험이 선도합니다

1958년 국민교육진흥과 민족지분형성을 창립이념으로 출범한 대한교육보험 —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앞선 경영으로 한국보험사의 신기원을 이루었습니다.

세계최초로 교육보험제도 창안, 국내최초로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100% 적립, 계약자 1인당 최고의 이익배당금 적립, 94년 국내보험회사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회사로 선정, 11조원에 달하는 특정한 보험자산 —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기반이 아닙니다.

이제 대한교육보험은 금융국제화시대를 맞아 **능력있는 젊은 인재와 함께 21세기 종합금융그룹**을 힘차게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교육보험이 설립한 회사: (주) 교보문고 / (주) 교보증권 / 교보투자자문(주) / (주) 교보실업

대한교육보험이 설립한 재단: 대산재단 / 대산농촌문화재단

◇ 평생모은 재산 본교에 기증한 장내순할머니를 만나 "행상보따리 안 해본 장사 없어" 지극한 불심으로 하루 세차례 향불공



"지극한 불심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지요" 평소 장내순할머니와 가장게 지내는 사이인 류승철씨는 말한다.
장내순할머니는 그간 갖은 행상으로 마련한 총합 자산금 영인연소 재 입여친경을 지난 18일 본교에

기증했다. 시기로는 12억5천에 달하는 이평은 불우노인의 거처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나 갑작스레 건강이 악화돼 평소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장내순할머니는 종립대학인 본교에 장학금으로 내놓은 것이다.
동국한방병원에서 처방한 한약을 들고 장학과 관계자와 함께 할머니 혼자 거처하는 조그만 연립주택을 방문했다. 장위중에 위치한 할머니 집을 찾기가 어렵지 않았다. 각종 일간지와 매스컴에 보도된 뒷에 장할머니는 동네에서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1백원도 쥘는 구두쇠 할머니가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할 줄 몰랐다"고 같은 동네 한 아주머니는 얘기한다.
"별로 알릴만한 것도 못되는데

세상에 알려져 부끄럽다"고 말하는 장내순할머니는 그동안 알아온 지병에다가 이제는 활일을 했다는 안도감에서 물려온 피로 탓인지 더 수척해지고 피곤한 기색이 엿보였다. "보도를 보고 인터뷰를 요청하는 이도 많아져 할머니가 편찮으신데 일이 번거롭게 된 것 같다"고 류승철씨는 귀찮게 준다.
"담배장사, 생선 야채장사들 보따리행상으로 인해 본 장사가 없다"고 밝히는 장내순할머니는 "길거리에 버려진 비닐을 모아 팔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주위에서는 이런 할머니를 두고 "몸이 아무리 안좋아도 택시 한번 안타고 굴이 버스만 타고 다니는 지독한 사람"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30여년간 인연을 맺어온 성북동

수월암에 지금까지도 새벽불공을 거르지 않는 장내순할머니는 하루 세차례 향불공 올리기를 멈추지 않을 정도로 불심이 깊다.
흘로 키워 출가시킨 딸에게 그동안 모은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은데 대해 "현재의 어려운 살림으로 지금당장은 서운한 마음이 들 것이나 시간이 흐르면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장내순할머니는 말한다.
장학금의 한 관제자는 "할머니님이 완쾌하여 건강하실 때까지 동국한방병원에서 편안히 모시고 싶다"고 하고 할머니에 대한 배려를 약속하며 "합계 모은 재산을 장학금으로 선뜻 내놓으신 쉽지 않은 결정에 대한 당연한 대가"라고 밝히는 한편 "후자 외롭게 사시는 분이니만큼 화생들이 자주 찾아뵙고 말벗이라도 되어 드렸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장내순할머니의 앞으로의 여생이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배편만큼 편안하기를 기원해 본다. (김소영 기자)

영화의 패러독스

가을 영화계 결산

단편 영화계 통해 기성영화계에 신선한 인력 배출 도피적 오락물 주종이론 외화비해 한국영화 시류반영 노력 엿보여



9월이후 본격 가을이 시작되고 초겨울을 마감하는 현재까지의 한국 영화계는 골고루한 정치, 사회권의 사건들로 인해 별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인연 북정형 비리와 지존과 성수대교 붕괴로 아시아 영화의 최고봉을 달리는 장에모의 '귀주이아기', 전장 장의 '푸른 연' 등은 아예 기억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이색적인 소재로 어필하는 대만 영화 '음식남녀' 정도만 겨우 체면치레를 하는 셈이다. 이제 우리 관객은 외국 영화하면 으레 '한탕 오락영화'라는 기준으로 영화관에 줄을 서게 되었다.
이번 계절에 선보였던 영화들은 으레 기술이론이 그러하듯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작품들로 채워졌다. 추석대목을 노리고 개봉한 외화 가운데 '컬러 오브 나이트', '트루 라이즈' 등이 많은 관객을 확보했고, 국내영화로는 '태백산맥', '개인의 범죄', '내에게 나를 보낸다' 세 편이 인기를 차지했다.
외화와 한국영화는 많은 정서적 차이를 보이는데, 외국 흥행물은 우리 실정과 무관한 도피적 오락물이 주종을 이루며, 한국 흥행물은 그대도 시류를 반영하려고 꽤나 노력하고 있다는 나름대로의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일례로 외화 가운데 평론가, 학자들에게 좋게 평가되던 '포레스트 검프', '필리프스', '내 책상의 천사,

'순수의 시대', '레드' 등의 영화를 과연 얼마나 많은 관객이 봐주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심지어는 영화사의 고전이며 전설적인 영화 '전함 포템킨'과 해외 영화제에서 계속 수상하면서 아시아 영화의 최고봉을 달리는 장에모의 '귀주이아기', 전장 장의 '푸른 연' 등은 아예 기억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이색적인 소재로 어필하는 대만 영화 '음식남녀' 정도만 겨우 체면치레를 하는 셈이다. 이제 우리 관객은 외국 영화하면 으레 '한탕 오락영화'라는 기준으로 영화관에 줄을 서게 되었다.
반면 한국영화는 '한국적인 것이 관객을 잡는다'라는 통설을 입증시키지 못하며 우리 사회에 민연한 현실의 강박관념, 긴장감을 오락화해 낸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단단 이데올로기 혹은 동족상잔의 검출력, 폭력과 비리의 어두운 세계, 물질화주의와 포로노에 대한 은밀한 타부관념, 대중 이러한 소재나 배경에 흥미를 느끼지 않는 우리 관객은 없을 것이다. 그 질적인 완성도에 대한 평가는 당장 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들 흥행 영화들이 대개 현실도피적 오락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할만 하다.
단지 우리 영화가 안고 있는 큰 문제점은 제작편수가 현저히 감소했다는 점이다. 스크린 쿼터제 일수가 축소되면서 더욱 위축될 것은 예상했지만, 이번 가을은 비참한 심정을 갖게 만든다. 뒤늦게나마 젊은 기획자들은 단편 영화제를 통해 기성영화계에 젊고 신선한 영화인력을 내보내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하지만 '해적'의 공문심의를 둘러싼 낡은 제도도 변화하는 영화의 사용은 이제 한국영화의 질적 성장, 수요급진 문제, 심의기준 등의 적체된 현안이 일개인의 판단에서가 아닌 제도 자체의 변화가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다.
이제 다가오는 겨울은 영화계에선 정말 뜨거운 겨울이다. 외화와 한국영화의 본격적인 싸움은 비로소 시작된다. 그 승부는 영화사가 걸어오지만, 결정은 오로지 우리 관객만이 할 수 있다.
정재형
(예술대 연영과 교수·영화평론가)

일본관련서적 '봄', 일본(인) 실체 찾기 일본을 보는 다양한 시각 긍정적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가 그만의 특이한 문체로 이 땅에 상륙한 때는 80년대 후반이었다. '감정을 투르하지 않는' 하루키 문체의 특이성은 쿨(cool)과 드라이(dry)라는 두개의 형용사로 대표할 수 있으며, 등장인물의 이름이나 지명 등 고유명사를 지워버리면, 사건의 무대가 일본이라 단정하기 힘든 그의 작품을 가리켜 도시소설이라 정의내리기도 한다. 일본적 감성에 찌들었던 이전 작가군들과는 확연히 다른, 끈적거리는 감정을 배제하고 감각적이며 세련된 그의 작품이 번역되어 나오자마자 한국의 젊은이들이 곧 그에게 열광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최근 우리 문단에 젊은 작가 몇 사람이 등장했다. 그들은 짧은 호흡의 감각적 문체, 영화를 보는 듯한 속도감있는 빠른 전개로 통하여 삽시간에 자신들의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들었다. '1961년 비틀즈가 탄생

했고, 그 해는 내가 태어난 해이기도 하다. '그 해 월남전이 끝났고 헤비메탈의 대표적인 그룹, 레드 제플린이 'Stairway to Heaven'을 부른 해이기도 하다'라는 표현이 간간히 섞여 있는 글을 읽으며, 하루키의 소설을 대하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이런 중에 최근 서점가에서는 진귀하다며 진귀하다고 말할 수 있는 '현상'이 눈에 띈다. 이제껏 학습서적 코너나 경제 및 무역 코너에서 볼 수 있었던 일본책은 최근 교양 및 인문사회 코너로 확산되고 있다. 이들 책들의 공통적인 성격은 '일본론', '일본인론'이라 단정지을 만큼, '일본(인)'을 '나름대로'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일본을 이상적 국가 중 하나로 꼽으면서도, '절대로 일본한테만은...'이란 의식을 버리지 않는 모순을 스스로 설명하기 힘들어하는 이 땅에서 그러나 일본을 객관적으로 보려했던 최초의 시도가 80년대 초에 있었다. 근대 이후 최초의 일본인론이라 말할 수 있는 이아영씨의 '축소지향의 일본인', 나라 인파에서 광장한 반향을 일으킨 이 책이 출간된지 십수년 후, 다시 일본(인)에 관한 책들이 봄을 일으킨다.

정치지도자 없는 일본의 콤플렉스를 지적하는 '일본의 빈곤',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고발한 '청산하지 못한 역사'에 '자르기 지향의 일본인', '일본은 없다', '일본을 망친 9인의 정치가', '일본어자는 죽었다', '일본-일본인', '일본은 있다' 등 일본 관련 서적의 홍수는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이다.
1993년 11월, 자신만만하고 배짱 두둑하고 직선적인 전여유이라는 여자가 '일본은 없다'라는 아주 주관적인 책을 발표했다. 이후, 일본관련 서적의 출판 러시를 촉발시켰던 이 책은, 그녀가 일본방에서 개인적으로 체험한 일들을 강한 어조로 쓰고 있다. 그녀는 사치스럽고 향락적인 일본여성과 팻팻함과 폐쇄성을 간직한 일본인들이, 결코 참된 의미의 국제화를 이루지 못할 민족이라고 주장한다. 그녀 자신이 '절대로...주관적인 글'이라 밝히고 있는만큼, 일본인들을 마음껏 밀어붙인다. 불행할을 받으며 한가리이 꿇구경을 하는 그들을, 결코 행복해서는 안될 사람이라 단언한다.
'일본은 없다'가 출간된 1년 후 이 변에는 '일본은 있다'가 나왔다. 일본주재 외교관인 서현씨는 근세



말에서 근대 초에 걸친 일본인의 개화지를 담담하게 서술한다. 특유의 실리성과 호기심으로 이미 19세기 중반부터 네덜란드어와 영어, 불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유럽의 근대화에 자극받아 재빨리 유럽화로 틀어서는 기만함을 단순한 기회주의라 매도할 것인가. 유연성없는 쇠국으로 나라가 위기에 빠진다는 사실 자체도 인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무지함을 간파할 것인가.
전여유씨와 서현씨는 자신만의 '일본-일본인'을 말한다. 그의 저자들 역시, 자기 나름대로 본 '일본'을 말한다. 하지만 2천년을 눈앞에 둔 지금에서야 우리는 일본인을 보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수십 개의 일본인론이 나온다고 해도 그것은 우선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전 단 한번도 그들을 마주보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서현 아
(대학원 일본과 석사과정 3학기)

메이커

메이커 열풍

▲가격과괴의 시대가 도래했다. 도매값보다 싼 가격으로 생필품 전반에 걸친 신종 판매사업이 호황을 누리며 향간에 화제가 되고 있다. 평균 30%밖에 물건을 팔거나 연세 소매점은 물론이고 대형 제조업체마저 주저앉게 될 형편이라는 소식이다. 'P클럽', 'D-마트' 등의 이름을 단 이러한 판매업장은 회원제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주말이면 인근 도로가 정체될 정도로 선풍적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업체가 인기를 끌고있는 요인중 가장 큰 것은 고가의 유명, 외국 상품을 혁명적 할인치 싸게 판다는데 있다. 그중에서도 유난히 잘팔리는, 갖다놓자마자 날개돋힌듯 나가는 물품이 있다고 한다. 바로 '게스'정비지다. ▲7만원 한타는 이 정비지를 2만5천원에 파니 잘 팔릴만 하겠다는 생각을 하며 수요를 살펴보면 중·고등·대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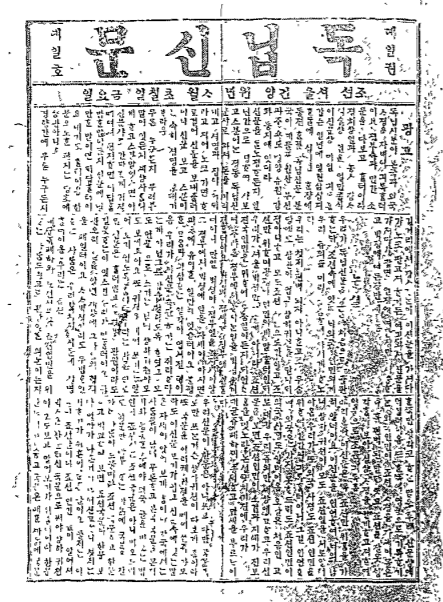
들이 거의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정비지를 입고 다닐만한 계층을 생각해 보면 그럴만도 하겠다는 생각을 접어두고 왜 하필 게스인가...하는 의문을 가지고 조금 길게 들어가다보면 바로 그곳에는 중·고·대학생들의 의식에 자리잡은 사치문화를 찾게 된다. ▲비베를 차고다니지 않으면 원시인, 이름있는 정비지를 입지 못하면 남방을 꺼내 입는 유럽의 바람이나 메이커 열풍이 문제가 된 것은 물론 어제오늘의 일이 아

니다.
또한 이러한 사치문화의 기저에는 '이름값'의 상승효과를 노리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특정 유명상표 및 상품에 대한 수요층의 집단구매심리를 자본주의적 특성의 하나로 넘길 수도 있다. '물신숭배'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외형의 화려함을 좇으며 이름만으로 속내를 숨길려 하는 외형의 조건을 찾는 심리가 사회적으로 민연되지 않았는가 의심할 뿐이다. 김영삼 대통령의 '국제화'를 뛰어넘는 '세계화'의 장기계획안 발표를 앞두고 그동안 국제화란 미명속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분담이 민중들에게 고통전담으로 다가오는 사실을 상기하며 '세계화'란 이름이 우리에게 다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단지 이름값의 상승효과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다. (재)



중앙일보가 신문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신문, 독립신문 우리나라 최초의 색선신문, 중앙일보



**종합뉴스섹션, 경제섹션, 스포츠섹션
중앙일보가 3색선신문 시대를 열었습니다.**
1994년 중앙일보가 新聞史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풍부한 정보를 살기 위해 48면으로 증편하고, 원하는 정보를 읽기 편리하게 3개 색선으로 나누어 보다 많은 정보를 드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색선신문, 중앙일보 - 한국 新聞史의 큰 역사로 남을 중앙일보를 지금 만나 보십시오.
중앙일보는 정보를 드립니다.
종합뉴스섹션
정치, 사회 등 국내외의 생생한 뉴스를 전문기자의 깊이있는 분석과 해설로 한치된 높은 정보로 다시 가할한 기사 - 중앙일보 종합뉴스섹션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경제섹션
유동, 산업, 부동산, 국제경제 등 경제관련 정보를 경제전문기자가 심층 분석하여 알기 쉽게 풀어쓴 기사 - 중앙일보 경제섹션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섹션
스포츠, 레저, 연예, 방송 등 라이프스타일이 다채로운 신체대의 관심사를 꼼꼼히 챙겨 신선함을 안겨 드리는 재미있고 알찬 정보 - 중앙일보 스포츠섹션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